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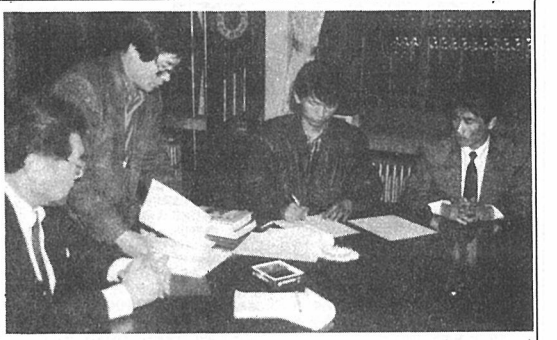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 523호

발행인 이 강 혁
편집인겸 지 재 운
편집장 이 상 필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대학보(☎965-7048, 961-415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리리
인쇄인 김 영 로

제 536 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90년 3월 27일 (화요일)

등록금 6.63% 인상 합의

학생측,"찬반투표로 최종결정할것,"
학원민주화 위한 사항 20여개도 합의



▲지난 24일(토) 오후 7시경 양캠퍼스총학생회장과 총장대행이 철야 면담끝에 등록금 6.63%인상에 합의, 서명하였다.

서울·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이강혁총장직무대행은 지난 3월 23일(금) 오후3시부터 24일(토) 오후7시까지 총장실에서 면담을 갖고 「등록금 6.63% 인상」을 합의하였다.

양캠퍼스 총학생회간부 단식투쟁시작, 비상학생총회를 통한 총학생회 등록금납부 자제구좌 설치결의, 무기한 총장실 점거농성 돌입 등 학교측과 학생측의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간 진행된 면담에서 학교·학생측은 ▲1990년도 1학기 등록금을 인문계는 74만7천2백원(신입생, 입학금포함 94만9천2백원) 자연계는 80만2천원(신입생 1백만2천원)으로 할 것 ▲제단은 학교부채에 따른 이자 5억원을 전입하며, 학민사업을 위해 전년도에 약속한 4억원을 추가로 금년예산에 반영하고, 이에 더해 5억원을 국고보조금 확충등을 포함한 각종기금조성으로 제단과 함께 학교가 확보할 것 ▲학교 총예산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낮추고 제단은 학교 운영비에 쓰일 전입금을 매년 증액시킬 것 ▲예산지출 부문중 인건비 11%인상, 교수연구비 6억중액등의 내용을 합의, 이후 학생총회를 통해 최종결정하기로 하였다.

총장과의 면담에 참석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김기석(동양·아람어4)군은 『이번 등록금 투쟁에 있어서 학우들의 단결된 모습과 깊은 관심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며 『등록금 납입연기에의 적극적 호응(서울캠퍼스 납입률 34%)과 총학생회 구좌 납부결의 동참이 해결의 열쇠였다』고 밝혔다.

전 박필수 총장의 상공부장관 입각으로 『등록금 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3월 20일(화) 1천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학교측에 「근거없는 등록금 인상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학생들에게 「추가등록시 총학생회 수납창구에 등록금을 납부할 것」을 결의하고 이후 과총회를 통해 계속등록금 투쟁을 홍보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부터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등 15명의 학생회간부들이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등조회의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한 양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이강혁총장의 21일(수) 22일(목) 면담에서 학교측은 ▲22일로 예정된 추가등록을 유보할 것과 ▲학생측이 요구한 「도서대출 문제」와 미등록으로 인한 사운드라이브러리 출입, 제학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없앨 것등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22차등조회의에서 논의됐던 10.2%, 9.2% 인상을 철회, 11%인상을 고수하기도 하였다.

22일 면담과 관련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측은 『21일 총장면담에서 학교측은 등록금에 대한 학생측입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제단 전입금 4억」「시설비에 있어서 제단과 학생공동부담」은 논의하지 않는 반면에 인상률만을 협상하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24일(토)까지 학생측 입장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23일(금) 1시부터 무기한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다.

두달동안 22차례의 등조회의에서 아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반면, 3차례의 총장과의 면담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어 구성목적의 타당성을 의심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등조위」에 대해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박상근(서양·영어4)군은 『교수·학생·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일을 논의하고, 각측의 주체적 학교행정참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둔 등조회의가 등록금조정 합의를 도출시키지 못했다는 오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양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총장과의 합의내용에 대해 용인캠퍼스는 어제(26일) 학생총회를 열고 「찬성」을 결정하였으며 서울캠퍼스는 지난 25일(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갖고 등록금합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찬반여부를 묻는 전체학생투표가 27·28일(수) 양일간 진행된다고 알렸다.

복지장학금 지급
20만원씩 백40명

복지장학금 2천8백만원이 복지장학금1개당 20만원씩 1백40개로 오는 3월 29일(목) 단대별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복지장학금 내역을 보면 ▲자판기장학금 2천5백만원 ▲복지기장학금 2백만원 ▲복지위 일반특강 50만원 ▲자동차특강 50만원 등이다.

용인 지입제버스 20대 증차

빠르면 5월부터 운행가능

오는 4월말까지 지입제버스 20대 증차와 증차에 따른 예산책정을 내용으로 하는 용인캠퍼스 교통문제 「증·단기 계획」이 수립된다.

지난 3월24일(토) 오후7시 총장직무대행 이강혁 교수와 양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교통문제를 포함한 학원 민주화 사항에 합의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5월중 용인캠퍼스 지입제버스가 모두 25대로 늘어나고 요금도 지난해 금액의 30%선 인상액으로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이날 학교와 학생측은 「증·단기계획」수립을 위해 「교통대책 소위원회(이하 교소위)」를 용인캠퍼스 총무처과장등과학생대표 2인으로 구성, 박희태 부총장과 각 처장등으로 이미 구성돼 있는 「교통대책위원회(이하 교대위)」의 필요에 따라 참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의를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교소위와 교대위에서 증차에 따른 필요예산을 확보, 조속한 시일내에 요금인하는 물론 편리한 교통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대학생 교통요금 할인제」폐지로 용인캠퍼스 교통요금이 1백%인상돼 그동안 학생들의 불만을 크게 사왔던 「교통문제」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많은 부분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대위에 학생대표가 적절적으로 참가할 수 없어 예산책정등의 문제에서 학교, 학생측의 의견조절에 장애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이후 교소위 기능의 강화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교 직원노조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본교 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은 지난 3월 15일(목) 조합장 엄재천씨 명의로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 서울북부지구 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13일 학교측과 직원노조가 협약한 임금협상을 대학측이 위반했음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진정서에 대해 조합장 엄씨는 『고졸자로서 고원급으로 임용된 자(기능직 포함)은 1호급을 가산할 것을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부직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진정서 제출이유를 밝혔다.

법대 비상총회 개최
김남길군 단대장선출

지난 3월 23일(금) 오후2시 노천극장서 열린 법과대 비상총회에서 학생회장 나원준(법학·4)군이 군입대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되 부학생회장 김남길(법학·4)군이 법과대 학생회장으로 정식 이준 되었다.

사령

임

징기자
김성열 (동양·중국어2)
김연희 (인문·언어2)
김영식 (서학·유고어2)
김태수 (인문·사학2)
신나영 (동양·인도2)
이옥희 (인문·언어2)
함명식 (서학·영어2)
황선해 (서양·독어2)
〈이상8명 3월8일자〉

면

징기자
박제일 (동양·아랍어2)
원에 의해사임
〈2월28일자〉

추가등록 28·29일 실시

고지서배부 서울경리과·용인총무과

추가등록기간이 오는 3월28일(수)부터 29일(목)양일간 실시된다.

재무처에 따르면 3월24일(토) 등록금문제가 일단 가합의 되므로써 시작된 추가등록은 지금까지 발부된 11%인상안과 89년수준으로 고지된 학생회측 고지서 모두 무효이며 6.63% 인상안(인문계, 계학생기준 74만7천2백원)으로 만 납부해야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고지서 배부처:서울재무처 경리과, 용인 총무과
▲등록금 납부장소:서울지역 국민은행, 제일은행 각 지점
▲신입생 추가납부액:인문계 9만6천5백원, 자연계 10만원
▲분할납부신청서 배포:28·29일(분할납부시 40만원이상 납부되야함) 11%인상안 납부학생의 경우 추후 특별장학금으로 지급예정

항수도

▲금융실명제 전면유보
—돈 모으는데 실명(失明)한 제발꾼의 행각
▲등록금 6.63%인상 학교측과 합의
—다음번엔 문교부와 결판을
▲정호용후보사퇴
—원(怨)에 의해 사임

반의자

후보사퇴가 남긴것

87년 이후 집권세력과 미국간의 「무관성」을 은연중에 유포시키고,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두사람간에 대권을 잡기위한 알력이 생기고 암투가 벌여졌다는 점을 또 은연중에 강조시킨 본질을 희석화시켰던 말이다.

그러나 본질을 은폐시켰고 전·노의 알력쯤으로 네비치게 했다고 해도 두사람간의 이해관계는 상당히 복잡했으리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 이해관계는 그래도 공개된 이해관계라는 의미에서 「오픈게임(Open Game)」으로 표현됨이 좋을 듯하다.

▲지난 연말부터 「대립」으로 나타난 노태우와 정호용의 관계에서 우리는 「오픈게임」을 또다시 기억해 보게 되었다. 「오픈게임」이었지만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었던게 사실이다. 제도권의 5공청산 희생양(?)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던 정호용이 다시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 입후보 「악조건」에서 고군분투해 왔다는 점이 온국민의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일단 주최측은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결국 엊그제 정호용이 후보사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오픈게임」엔 계속 노태우가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오픈게임」에 대해 각일간지가 해놓은 분석을 보자면 선거과열 현상을 막았기 때문에 잘됐다는니, 정호용에 대한 이후 배려를 잊어서는 안된다는니, 평민당은 노태우가 「사퇴종용」이라는 반칙을 범한점을 결고넘어지기에 안간힘을 쓴다는니, 가지각색이다.

▲어쨌든 「오픈게임」이 또 막을 내린듯하다. 미국과 집권세력은 이번에도 거물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선거에서 지지표 각종부정이나 정권의 비도덕성이 드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불은 반민자당 의지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되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알리바이」도 스스로 맞추지 못하고있다. 아니 그정도로 통할 국민의식이 이미 아니기에 아무리 잘 맞춰도 그들의 한계는 드러날수밖에 없다. 이를 직시하자.

〈임재권〉

한대신문 기자들의 「광고질서 회복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학교당국과 광고대행사만의 독단적 광고계약은 무효입니다

1. 건강한 광고를 싣고자 하는 「광고질서회복운동」은 기자들의 정당한 요구일뿐 아니라 독자에 대한 책임이다.

「무릎꿇는 곡필보다 서서죽는 직필을 백한다」는 대명제를 숭고한 진리로 믿으며 그동안 대학신문은 오직 자주·민주·통일의 참언론으로 독자들의 「알권리」에 충실히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한 노력은 엄청난 반압과 많은 한계에 부딪히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학신문의 존폐를 묻는 위기의 기로에도 섰지만 오직 대학신문을 사랑하는 수많은 독자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진실을 위한 붓대만은 꺾을수 없다는 시대적 사명으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대학신문이 처한 많은 한계들중 하나가 바로 「광고」였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전까지 광고는 신문제작 주체인 학생기자들에게도 관심 밖이었다.

광고도 전체 신문지면의 1/3을 차지하는 또다른 의미의 엄연한 기사고 독자에게 체임져야할 신문지면의 일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간 광고면의 무관심으로 대학신문의 지향과 특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질 피폐광고,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광고가 게재되고 무비판적으로 미·일 외세의 저질문화를 유포시키는 광고가 실리는 등 즐겨야는 대학신문의 건강성을 잠아먹고 넓게는 건전한과 올바른 대학문화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그간의 대학신문기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한 무책임을 통렬히 자기 비판하면서 「광고질서회복운동」의 기치를 내걸게 되었다. 또한 광고지면에 대한 체임과 권리는 학교나 광고대행사가 아닌 우리 대학인이며 신문 제작을 맡고 있는 학생 기자에게 있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 좀더 좋은 신문, 독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숱한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자들의 정당한 요구인 건강한 광고를 싣고자하는 「광고질서회복운동」의 의의를 제대로 알려 하지도 않고 신문 발행을 중단하는 등 도저히 대학인의 지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폭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것이다.

2. 독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한대신문사의 부당한 제작 중지는 즉각철회되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당국의 독단으로 2주째 신문발행이 중단되고 있는 한대신문사의 경우이다.

올해 광고계약이 만료되는 한대신문사는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회』의 중심 사업으로 진행중인 「광고질서회복운동」차원에서 우남과 함께 대표적인 악덕광고대행사로 규정당한 에드젠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의 하고 이를 학교측에 통보하였다. 학교당국도 「광고질서회복운동」의 취지와 에드 젠의 과행적인 행각을 이해하고 재계약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광고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학생들과 협의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2일,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전면 무시 학생기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에드젠과 재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학생기자들은 「학교측과 광고대행사만의 독단적인 계약은 인정할수 없다」라며 자체 기획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고 3월14일 학교측은 에드 젠의 광고를 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대신문 2만 독자들의 「알권리」를 일방적으로 봉쇄하는 제작중지를 통보, 지금까지 불가항력적으로 신문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월23일) 한대신문사는 다수 기자들이 제작 중지 철회와 광고 질서회복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중이다.

우리는 최소한 민주주의 기본질서 마저 증발한 사회에서 그나마 자율적 민주주의가 명맥을 이어 온 곳이 대학이란 사실을 긍지로 여겨왔다. 또한 마지막 양심의 보루라는 교수님의 존엄과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굳게믿으며 따라 왔었다. 그러나 지금 학교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한대신문 2만 독자의 「알권리」를 무참히 유린하고 한대신문을 사랑하는 모든 이를 가슴아프게하는 사태에 대해 학교당국의 책임과 신문사들 대표한다는 주간교수님이 과연 얼마만큼 한대신문에 애정을 갖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독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언론의 생명이 어느 일방의 자의적이고 편협된 판단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대신문은 어느 일방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며 또한 소유할 수도 없으며 소유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한대신문에 대한 최종 판단의 권리는 한대신문 2만 독자와 대학언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다.

언론의 생명을 끊는 제작중지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회』소속 3대개사는 이를 한대신문사만의 개별 문제가 아닌 전체 대학신문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대학신문을 사랑하는 독자들 앞에서 천명하는 바이다.

3. 한대신문사가 광고계약을 거부한 에드 젠은 과연 건전한 광고 대행사인가

에드 젠은 그간 대학신문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매체료는 적게 주고 엄청난 폭리를 취한 우남과 함께 대표적 광고대행사의 하나이다. 특히 이윤이 생긴다면 광고 내용에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고 퇴폐적·비윤리적 광고를 서슴없이 게재해 왔으며 서강대, 외대, 한양대등에서는 계약서상에 작성된 매체료 납입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들 편한대로 지급해 문제가 된적도 있다.

또한 외대와 동국대 등에서는 계약할 당시 축쇄본을 제작해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속을 이행치 않은 사례도 있다. 이로인해 대학신문기자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되고 있으며 악덕광고대행사의 대표적인 회사로 규정당한 상태이다.

작금에 서대기련체원에서 광고질서회복운동이 힘있게 전개되자 이로인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매체료를 기존의 2~3배 올리고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등 하루아침에 자선사업가(?)로 둘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도 광고면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전체 대학신문 광고를 제독점 안정적인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님을 알고 있다.

대학신문의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대행사의 기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하는 기업과 대학의 중개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모든 서어비스업이 그러하듯이 성실과 신용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광고대행사도 광고를 책임지는 주체의 하나라 할 때 대학신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할때 돈만 아는 기업은 당연히 대학사회에서 추방되어야한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악덕광고대행사를 추방하고 「건강한 광고」를 담은 건강한 대학신문을 독자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것을 다짐한다. 통일염원 46년 3월26일

서 울 지 역 대 학 신 문 기 자 연 합 회

사 설

재단만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민자당의 반교육적 작태임을 직시해야

지난16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민자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면적으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교원의 신분보장을 내세우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기존 사립학교 제단의 병폐를 더욱 확대·심화시킬수 있는 내용으로 현화되어 「교수협의회」등으로 부터 거센 반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총·학장이 가지고 있던 교직원임면권을 학교법인에 넘겨주고 총·학장의 임면권도 이사장에게 그대로 존속시키므로써 제단은 교원에 대해 더욱 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뿐아니라, 임용기간을 제단이 자의적으로 제정하므로써 매학기마다 계임용심사, 탈락의 소지가 마련되어 학원민주화에 동참하기나 제단에 비판적인 교수나 직원들을 제단측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실질적 해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우기 아무 권한도 없는 「대학평의회」를 신설하여 학원자주화를 한주제로 활동해온 「교수협의회」를 무력화시키려하고 있으며, 예산·결산에 대한 승인및 감사권을 교수·학생·직원등 대학 주체들로부터 분리, 「예·결산 전문위원회」로 이양하므로써 제단이 대학제정을 마음껏 전횡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처럼 사학제단이 학교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도록 되어있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자행되고 있는 사학제단에 의한 교원의 신분적인 탄압과 사학을 영리화독의 수단화하는 것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건을 넓혀주는 행위일뿐이다.

진정, 사립학교의 자율을 무시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할 입법에서 처음부터 대다수 입법주체들이 사학제단과 관계하고 있었으며 더우기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대학들의 개입여부가 기정사실화되어 나타난 형태임에 더욱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교권을 묵살하고 교원들을 사학제단의 부속물화 시키는 이번 사립학교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뿐아니라, 「여대야소」의 현 정국에서 보여진 구국(?) 민자당의 본질이 힘있는자들의 기득권을 강화·유지시키려는데 급급하고 있음을 또다시 보여준 작태이다.

최근 일련의 입법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민자당의 반민주적 행위들은 그들의 비도덕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책략임에 다름아니다. 더우기 반민주적·반교육적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원자주화의 열기를 근본부터 제거하려는 현 정권의 음모임이 자명하다. 이러할때 범민주연합의 조속한 단결이야말로 자중박멸 개폐와 제도적 폭력장치들을 정도(正道)로 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등록금「6.63% 인상」합의를 보며

근 4개월여간 지속돼왔던 등록금문제가 지난 24일 총장직무대행 이강혁교수와 양캠퍼스 총학생회장의 합의로 일단락되었다.

「6.63%인상」

평균 10%이상 인상된 타대학과 비교했을때 일단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책정되었고 제단 전입금을 강화시키는등 학원민주화를 위한 여타 사항과 함께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학생들에게 큰 반대없이 수용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굳이 세용지마(塞翁之馬)의 교훈을 되새기지 않아도 이번 등록금문제 해결은 「이후 제발 방지 근절」과는 거리가 먼것으로써 내년에도 「등록금문제의 험난함」이 계속되리라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88년 9월 「대학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명목으로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발표,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을 사실상 폐지시킨 정부의 그릇된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등록금 인상요인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87년 교육세 징수액수의 41%, 88년 52%, 89년 64%가 각각 교육재정중 타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이라는 국회자료도 등록금 인상요인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있다.

그러하기에 총학생회장 및 각단대학생회장 선거시 각후보들의 으뜸 공약이 매년 「등록금 동결」이었으면서도 대정부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한것은 학생대표들에게 수고했다는 말과함께 빼놓을수 없는 지적이겠다. 또한, 등록금문제해결에 주체적이지 못한 학교당국의 모습도 대정부투쟁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교육환경개선등에 대한 부담을 학생들에게 넘기려는 뻔한 의도를 정부가 보임에도 학교측이 처음 「16% 인상안」을 제시했던 것은 「그러한 의도에 편승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게할 만큼 학교당국이 기본적인 문제해결에 능동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오를 학교·학생측이 올 연말에 다시 범하지 않기위해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모든 대학간의 연대로 「등록금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겠다. 그러면 당면결과에 흡족해 하면서도 여전히 한쪽에 근심거리가 버티고 있는것 같은 느낌을 또 받자는 꼴게 될것이다.

『총학생회장님 힘내세요./』

「대망의 90년대」라는 기대와는 너무도 다르게 1990년은 혼란과 변화무쌍함만을 우리에게 선보이며 이제 3월의 막바지에와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자본주의권의 보수화가 그것이고, 우리나라 차원에서 보면 민자당의 화려한 등장과 민중들의 비명소리가 그것이고, 우리학교 차원에서 보면 박필수 총장님의 비장한(?) 입각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3인의 단식투쟁이 그것일 것이다.

등록금투쟁이 시작된 이후 우리 외대인은 이것이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외대사랑』을 실천하는 「외대자주화」투쟁임을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이제는 몸으로 느낄 정도가 되었다.

3월17일부터 시작된 총·부학생회장·서양어대학생회장의 단식투쟁을 보며 먼저 학생회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다시한번 「외대사랑」의 위대함을 느낀다. 단순히 밥을 굶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노력하려는 자세가 보이기 때문이다. 88년 22대 총학생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부총학생회장이었던 나도 단식투쟁을 했었고 며칠을 굶었던 기억이 낟다. 지금 기억으로도 당시 정말로 고마왔던 학우들은 나의 건강을 염려하는 학우들보다 열심히 총회하고 연구하고 뛰어다니는 학우들이었다. 단식투쟁을 보며 격려해 주시고 싶은 외대인은, 외대를 사랑하는 사람은, 외대의 주인이고 싶은 분은 1990년초의 세계적 혼란을 외대에서 먼저 날려보낸다는 각오로 중간에 지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었으면 한다.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생회에서 먼저 일했던 선배일꾼으로서 또한 외대를 사랑하는 외대인의 하나로서 마이크 앞에서 힘차게 외쳐보고 싶다.

『7천4백 외대학우 여러분/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7천4백개의 입을 모아 힘차게 외쳐봅시다.

「총학생회장님 힘내세요./」

「애국외대 단결투쟁 만세/」』

〈동양·인도어4 이해웅〉

복사기 문제, 학우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

대학 생활 소비자 협동 조합에 드립니다. 534호에 실렸던 김완기(인문, 철학2)군의 복사기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생협」측의 답변에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완공되면 그곳에 복사기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완공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학우들은 계속 복사실에서 몇 분씩 줄을 서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인간비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여(예:아르바이트생 채용등) 학우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을까하는 해결의 관점에서 고민을 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복사기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학원복지의 문제를 학우들 속에서, 학우들과 함께 하는 자세로 해결하는 「대학 생활 소비자 협동 조합」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서학·영어2 김희연〉

떵수당 明水塘

임 영 상
〈사학과 교수〉

존경하는 교수님/ 「외대사랑」이 무엇입니까?—외대학보 3월 20일자—

이제 외대인 생활 겨우 9년째. 더우기 외대를 대외적으로 알릴만한 이렇다할 학문적인 업적도 없다. 그러나 단식에 들어가면서 「외대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대표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 교수—비록 개인 자격이나—된 자의 도리이리라.

무슨 일이 터졌지 가슴졸이면서도 매번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대학문을 나서는 제자아게 축원기도를 해주기 위해서였다. 늘 텅비는 졸업생 자리,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수상학생도 아닌데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40분 넘게 딱딱한 의자에서 4년을 마감한 졸업생들, 그들은 그때 어떤 생각으로 자리에 앉았을까? 나란히 앉았던 사학과 제자들…. 후회스러웠다. 왜 진작 저들을 좀더 정성으로 가르치고 사랑하지 못했는가?

「창공에 빛나는 삼각산…」 학생들을 따라 부르다 외국인 교수의 정확한 가창에, 숨어있던 「교만」이 무너져 내려갔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 「더욱사랑」을 다짐할 수 밖에….

대학은 원래 같은 목적아래 협동했던, 학생들과 교사들의 집드로서 출발하였다. 대학의 역사는 교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자치가 위축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흔히 용기부족으로 단순 지식기사로 전락하기 일쑤였으나, 그래도 교수단은 평생의 대학인으로 자치대학을 위해 투쟁하기도 하였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외대 교수에게 「외대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외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연구업적을 내고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 불안이 뒤엉킨 「개인으로서」 대학을 찾은, 아울러 아직 어른 대접받는데 익숙치 않은 학생들에게 교수의 「외대사랑」에는 격려와 훈계가 함께 하는 구체적인 「학생사랑」이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외대사랑」의 방법에 대하여

교수와 학생의 연구활동을 돕는 우리 직원선생에게도 「외대사랑」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외대인의 심장부 도서관을 생각해 보자. 하루에도 수백명의 출입자를 확인하면서 밤늦도록 화장실 구석까지 쓸고 닦는 청소원 아저씨 아주머니, 교수와학생들이 신청한 몇가지 책을 주문하고 분류하느라 하루해가 부족한 사서선생들. 이들 역시 틀림없는 「외대사랑」의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대학살림의 거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우리 외대교서는, 학생들의 「외대사랑」이 「중흥외대」의 관건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성의 사회사」도 「사회의 바로미터」로서의 대학이 사회를 향해 발언할 때마다 학생들이 선봉에 나섰음을 증언하지 않았던가.

그런만큼, 학생단이 대학운영에 발언하고 참여하려는 것에, 대학당국은 보다 포용적인 자세로 그들을 대학의 한 주체로 받아들이고 섬겨야 할 것이다. 각별히 「중흥외대」를 외쳤던 박충장께서 대학을 떠난 바로 오늘, 학생들의 「외대사랑」은 더욱 외미로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외대는 조만간 과거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대입학원측의 진단을 우리 외대인은 주목해도 좋을 듯하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외대를 「명문」으로 자리매기는데 공헌한 「외국어구사력」이나 더우기 「고시합격자수」를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기준이 대학이 산출해낸 학문적인 성과물에 있음을 동의할 것이다. 이에 학문과 사회에서 「세계를 호흡하는」 선배들을 능가하고자 강의실과 도서관을 지키는 외대인이 「외대사랑」의 주역인 이유가 있다 하겠다.

물론 민족과 민중을 위하여 책임다하는 「깨어있는 지성」이 되고자 「자기희생」의 길을 걷고 있는 외대인 또한 당당한 「외대사랑」의 실천자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우리 외대인 모두는 각자의 「외대사랑」 방법을 존중하면서 「중흥외대」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교가를 모르는 외대학생? 전대협기에 앞서 교가를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교가를 배우지 않았다는 세내가들의 무정에, 졸업식장의 외국인 교수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존경과는 거리가 먼 사학도지만, 토막식식 전하면서 10매 담변을 맺고자 한다. 프랑스혁명의 이념 「박애」는 원래 프랑스동포에었다.

흡산의 소리

〈알림〉

『흡산의 소리』를 모읍니다.

원고매수는 2~7매 정도로 쓰신 원고를 가지고 언제든지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로 오십시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도서관, 「주 5일 근무제」로 이용에 불편
참고열람실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이번 학기부터 사무직원의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토요일은 모든 학사업무가 쉬게 되었다. 따라서 88년 2학기 학원민주화투쟁에 의해 도서관 참고 열람실 개방시간이 연장되었던 것이 학생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도 않은채 이번 학기부터는 토요일에도 참고열람실이 쉬게 되었다. 전에는 수업등 바쁜 시간에 쫓겨 충분히 찾지 못한 논문, 참고서적, 잡지등을 토요일 한적한 시간을 이용해 볼 수 있었으나, 주5일 근무제 이후로는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 해도 지녀에는 복사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업이 없는 빈 시간을 이용해 바쁘게 찾아야 하므로 충분한 자료를 접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는 획일적인 학사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교 당국자들의 도서관의 이중적 기능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학교의 모든 학사업무는 오전 9시에 시작하면서 이와는 달리 도서관 열람실은 새벽 5시에 개관해서 24시에 폐관하는가? 이는 대학에서의 도서관의 특수한 기능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는 도서관의 핵인 참고열람실을 다른 학사업무시간과 똑같이 조정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단순히 직원들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등을 위해 학생들의 학문적 열의를 무시하는 처사에 과연 도서관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그 존재 자체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데…….

따라서, 도서관 직원이 토요일에 교대로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라도 1층 참고열람실의 토요일 개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4층 칸막이 덴 구석자리가 아니라, 많은 서적과 논문이 있는 1층과 2층의 참고도서실과 과제물도서실이라는 것을 학교 당국자는 깨달기 바란다.

〈법·법학3 류창호〉

등록금 투쟁에만 매몰된다면 노정권만이 이익을 볼 뿐이다

등록금인상 반대투쟁을 선도해 나가는 총학간부 이하, 각 단대장 그리고 여러학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지난한 투쟁에 있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투쟁하는 자랑스런 동지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얻어지고 있는 성과물, 학우들의 대동단결투쟁만이 무엇인가 일궈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등록금인상 반대투쟁의 한계성과 그로인해 본의아니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생 집단원들의 집단적 이기심을 들고싶다. 대부쟁에 있어 보여지는 학우들의 모습은 기성사회에 있어 특정한 압력집단의 모습같아 안타까왔고 자기의 가시적인 이익문제가 걸렸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학우들의 모습은—전부 그렇지는 않지만—90년대의 양심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젊은이들로서 한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두번째, 본의는 아니겠지만 현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학내문제로 학우들이 학교당국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을때 가장 즐거워 할 집단은 누구이겠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현 집권세력인 노태우정권뿐이다. 엄마전에 내각개편이 있었는데 부총리이하 3공, 5공인물이 대다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장을 일궈내고 분배를 하겠다는 즉 조순경제팀이 전인해내던 「경제개혁」의 전면후퇴요, 노동자의 착취를 담보로 한 3공경제로의 복귀라 할수 있다. 이제 앞으로 노동자에 대한 집대적인 탄압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파업은 공권력으로 무참히 짓밟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팀스피리트(이하T·S) 훈련기간이다. 이제도, 그저께도 T·S훈련도중 우리의 젊은이가 소리없이 죽어갔다. 누구를 위한 전쟁예행연습이며 젊은장병은 왜 죽어야 하는가? T·S훈련의 부당성을 우리는 토로해 내고 선전해 내야만 하지 않을까?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정치적 상황이 이러하건데, 매년 되풀이되는 등록금 투쟁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면, 이 허리잘린 조국을 누가 아파해야 하는지, 우리 외대인들은 한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영·영어3 이용석〉

답변란

▲지난 535호에 게재되었던 식당문제에 대한 서훈(정과·행정3)군의 물음에 후생계 서은태주임은 『실질적으로 과대한 임무로 인한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식당내부의 어려움으로 배식시간대의 증대는 어렵고 대신 이번 하기부터 시작 된 스넥코너등 활성화시켜 그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주임은 『스넥코너의 활성화 방안으로 빠른시일내에 「핸버거」, 「샌드위치」, 「핫도그」등의 식단을 증가시키기도록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작은동아리 안에 서로를 묶으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시(詩)를 쓰자!!

이문새내기 여러분께 제7대 민중승리 동아리연합회 63개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학술1분과

국제경상학생협회(AIESEC)
해외문학회 A·L·A
TIME반
콤퓨던트(COMPUDENT)
우리말 연구회

학술2분과

민족사상 연구회 여성문제 연구회
사회철학회 우리역사연구회
언론문제 연구회 한우리
통일문제 연구회 한국사회 연구회
기독사상 연구회 외대문학회

공연분과

고전기타반 새물결
외대연극회 가면극 연구회
외대합창반 목요음악반
실내악반 영화울림
민속악 놀이반 얼소리

애기능분과

서우회 미술반
사진반(ANGLES)
만화모임 해갈
바둑반
외대산악회

외세문화에 찌들고 저질·퇴폐 향락
문화에 병들어 버린 대학문화를
바로 세울수 있는 참신한
90학번을 모읍니다

종교분과

가톨릭학생회(SAINT)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UBF)
C·B·A (Compus Berea Academy) Joy선교회
기독학생반 한사랑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C·C·C)
성경연구반 한국기독학생회(IVF) 예수전도단
불교학생회 증산도우회

봉사분과

호우회 국토순례반
국제민간 외교반 (People to People)
한국유네스코 학생회 (KUSA)
외대 상록회 실천사랑

체육분과

축구부 야구부 배구부
테니스부 농구부 수영부
핸드볼부 스키부 검도부
볼링부 핸드볼부
태권도부 조정회
외대 헬스·에어로빅회

사회주의권 변화 어떻게 볼것인가 〈3〉

글싣는 차례

1. 최근 사회주의권 변화
2.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3. 북한사회주의 변혁과정의 올바른 이해
4. 사회주의 개혁을 보는 편향된 시각에 대한 비판과 사회주의권 개혁의 방향성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정과 변화의 전망

조 진 애
〈자유기고가〉

1. 머리말

지금 사회주의진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85년 등장한 고르바쵸프는 개방·개혁을 표방하는 페레스트로이카 노선을 내걸고 소련식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왔고, 나름대로의 성과와 대중적 지지에 힘입어 최근에는 개혁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또한 민주화와 관료주의 척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군중시위로 인하여 「6·4천안문 사태」라는 일대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폴란드에서는 연대노조중심의 연립정부가 들어섰고, 헝가리의 집권당인 사회주의 노동당(공산당)은 해체되어 사회당으로 재출범했고,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동구여러국가에서도 프롤레타리아독재·공산당의 영도적 역할·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대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이야 어떻든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기적 정후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대개혁의 와중에서도 중국, 쿠바, 북한등의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의 원칙을 견결하게 고수하고 있으며 소련·동구의 변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과연 이들 국가에서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흥미로운 관심사중의 하나이다. 특히나 주체적인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표방하며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반쪽, 북한사회주의의 건설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조국통일의 일주체이고, 북한의 건설과 전망은 통일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위한 첫걸음으로 되기때문이다.

또한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고찰은 소련·동구등의 수정주의적 개혁움직임과 비교를 통해 사회주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세계사회주의의 진로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작업이다.

2.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특징

매개의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성(보편성)과 함께 다른 국가와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진다. 물론 일반성과 특수성은 상호간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북한에서도 역시 사회주의의 일반성과 북한고유의 특수성은 통일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특히 북한은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방법을 사상·이론·방법및 그 구체적 적용인 혁명과 건설의 골간적 원리로 내세우고 있으므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현저히 구별되는 개성(특수성)이 강한 국가이다. 매개나라의 발전경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원리를 그 사회의 주체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연구하는 「내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사회주의의 연구·고찰에 있어서도 「내재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이나 관변연구의 선험적 입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즉, 「북한사회주의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었나」하는 것을 북한사회주의 스스로가 이야기하도록 하는 식의 내재적인 접근방법의 연구·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재적인 접근은 소련·동구·중국 등 여러 사회주의국의 비교연구와 병행되므로, 비교사회주의적인 관점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북한식 사회주의의 건설은 다른 사회주의와 비교할 때 어떤 특징(=특수성,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북한은 생산력발달을 중심으로 하는 물질경제적 관점의 고전적인 혁명건설방식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치·사상우선의 혁명건설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식 혁명건설의 내재적 원리가 사람중심, 인민대중중심의 철학인 「주체사상」과 이에 근거한 경제관리노선인 「혁명적 군중노선」에 의해 뒷받침 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혁명건설의 최고의 가치는 「주체」의 확립이고, 북한혁명 건설과정은 다름아닌 「주체」의 확립과정이었다는 점이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외교적 자주, 경제적 자립, 군사적 자위등의 소위 「4자(自)노선」의 건지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항일혁명전통교양」등은 한결같이 「주체」를 확립하려는 노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셋째, 북한의 혁명건설과정은 수령과 당의 유일지도체계가 관철·확립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수령-당-인민대중의 유기적 결합과 특히, 수령-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수령관」「사회정치적 생명관」에 근거하고 있다.

3.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경로

가.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무장투쟁은 1930년대와 1940년대초반(해방직전)까지 동만주와 조선북부지방에서 김일성과 그 동료들에게 의해 전개되었던 대일 무력항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시기의 투쟁의 성과에 힘입어 이후 북한정권의 핵심골간세력이 형성되었고 혁명과 건설의 기본방향으로서의 혁명전통이 창조되었다는데서 북한은 의의를 찾고있다.

항일무장투쟁세력은 1931년말경부터 유격대를 조직하여 유격근거지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벌였고, 1936년에는 조선북부지방과 장백현을 중심으로 항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조직·운영하였고, 보천보습격등 수차례의 국내진공전투를 감행하다가 1940년대부터는 극심해진 일제의 항일탄치산대토벌을 피해 소만국경으로 이동하여 역량을 보존하며 주로 소부대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자세한 내용은 이재화,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백산서당, 1988』참고바람)

이 시기의 항일무장투쟁에 의해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민족주체노선이 확립되었고,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생활기풍, 혁명적 군중노선,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기풍, 혁명적 낙관주의와 동지애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한사회의 「혁명전통」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인민정권운영, 당창건사업, 대중단체건설, 통일전선조직운영, 대중정치선전사업등의 경험은 이후 북한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의 모범적인 전형으로 되었다. 이러한 것은 북한사회의 곳곳에 나붙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등의 구호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나.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기(민주개혁기)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일소하고 봉건적인 제관계를 청산하여 민족적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을 말하는 것으로, 해방후부터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결성되는 1947년 2월까지 추진된 일련의 개혁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①무상몰수, 무상분배 ②소작제철폐, ③분여토지의 매매, 저당금지를 통해 지주계급의 일소와 농민의 개인경리를 실현한 토지개혁(1946·3)과 노동법령(1946. 6. 24)남녀평등권 법령(1946. 7. 30) 중요산업국유화법령(1946. 8. 10)의 공포, 각종사상문화운동등의 개혁정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중요산업국유화정책은 「자본가계급의 청산과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의 운영경험」이라는 호조건을 제공하여 이후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이행에 중요한 동력으로 되었다.

한편 이러한 개혁정책의 성공으로 북한에서는 좌파해게모니가 확립되었고, 또한 김일성중심의 영도체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다.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강화·발전기(사회주의혁명기)

1947년 2월 「북조선 시·도·군 인민위원회」를 통해 조직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창출된 일종의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이었다. 일련의 민주개혁을 통해 반봉건적 요소및 제국주의적 잔재를 청산한 북한은 이후 점진적인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진입하였다.

1947년부터는 국영상업망확장과 국영농목장확대정책을, 1948년부터는 농기계임경소설립을 추진하면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시도하였고, 47, 48년 각각 1년간의 국민경제계획을 성공리에 수행하고 이어 1949년부터 「인민경제2개년계획」에 착수했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한국전쟁의 참화로 북한은 말그대로 폐허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했다. 1953년 8월5일 「노동당 6차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보고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를 통해 ①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건설하기 위한 준비와 정리, ②국민경제의 각부분에서 전전(戰前)의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3개년 계획실시 등을 제시하였고, 여기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 시키자는 것」이 전후 경제발전의 총노선으로 채택되었다. 이 노선은 생산력의 발전이 화급한 문제이기는 하나 생산관계의 후퇴를 통해서가 아니라 생산관계의 진보를 통해 생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농·공업 및 상업에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3대혁명(사상·기술·문화혁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에 있어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는 사업과 함께 사람들의 의식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상혁명과 인간개조에 많은 힘을 기울였는데, 이것은 사상사업을 선차적으로 내세우는 주체사상과 이를 토대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건설이 기존의 맑스레닌주의나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구별되는 독창적인 점이다.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이 공고화되었고,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전투적 강령이 제시되었다. 1973년부터는 소조운동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중노선에 의해 뒷받침된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속에서 발생한 혁명운동으로서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 전진시키려는 전인민적운동이다. 천리마운동은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생산력의 발전을 보장하였고, 대중경제관리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을 창출하는 대중적 교양의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소련이 스타하노프운동이나 중공의 대약진운동등의 사회주의적 경쟁운동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청산리방법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 군중노선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발전시킨 사업방법이다. 이 방법의 기본은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지도일군이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에 맞는 문제해결의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며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행해나가는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청산리정신과 방법을 공업관리분야에 구현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기업관리에서 윗사람과 아래사람, 생산자들사이에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며, 동지적으로 도와주고 단결하며 생산자대중의 열의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형태이다.

속도전이란 자력갱생의 기치하에 인민대중의 정치적 자각과 창조적 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비약과 건설을 이루겠다는 사업전개원칙인데, 최단기간내에 양·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것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이란 정치사상적 지도와 과학기술적 지도를 결합하고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민중을 발동하여 3대혁명을 추동해 나가는 지도방법이다. 요컨대 기존의 노동화된 지도방침과 행정체계로서는 사회주의대건설에 많은 한계가 있었으므로 3대혁명소조라는 젊은 선봉대적 들격소조로써 퇴화된 당의 지도체계를 활성화하고 침체한 혁명과 건설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일종의 간부교체운동이라 볼 수 있다.

5. 맺음말-북한은 변화할 것인가

사회주의진영의 전반적 변화의 물결이 북한에도 밀어닥칠 것인가? 북한또한 변화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북한은 경공업·소비제부문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88년 11월14차 전원회의에서 전자·자동화공업발전방침을 내놓았고, 89년 4월 16차전원회의에서는 경공업혁명방침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자본주의진과의 경제교류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과도 새로운 화해관계를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혁은 거부하고 있고 반제자주적 입장과 자립적 민족경제발전노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소련·동구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민주주의 중앙집중제나 관료주의가 청산리정신과 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해 극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89년 9월9일 『로동신문』의 정권창립41주년 기념사설을 통해, 어떤 환경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당의 전략적 노선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3대혁명노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때,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사상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관리방식으로서의 혁명적 군중노선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세계의 신데탕트국면과 개혁의 물결을 따라잡기 위해 정치·경제·문화여러측면에서 신중한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회주의의 기본원칙과 자신의 사상이념에는 더욱 충실할 것으로 예견된다.

인간의 자주성 기반한 사람중심 사상 위에 대중에 의거한 당의영도를 전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견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일소하고 봉건적인 제관계를 청산하여 민족적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을 말하는 것으로, 해방후부터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결성되는 1947년 2월까지 추진된 일련의 개혁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①무상몰수, 무상분배 ②소작제철폐, ③분여토지의 매매, 저당금지를 통해 지주계급의 일소와 농민의 개인경리를 실현한 토지개혁(1946·3)과 노동법령(1946. 6. 24)남녀평등권 법령(1946. 7. 30) 중요산업국유화법령(1946. 8. 10)의 공포, 각종사상문화운동등의 개혁정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중요산업국유화정책은 「자본가계급의 청산과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의 운영경험」이라는 호조건을 제공하여 이후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이행에 중요한 동력으로 되었다.

한편 이러한 개혁정책의 성공으로 북한에서는 좌파해게모니가 확립되었고, 또한 김일성중심의 영도체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생산력 발전을 위해 연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되어야 한다는 독창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정책노선에 따라 1954년부터는 농업협동화가 추진되었고, 이어서 개인상공업의 협동화도 추진되었다.

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향한 계속 혁명단계(1958~현재)

1950년대말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한 북한은 생산관계의 확립에 이어 생산력의 발전과 사상의식의 개조에 박차를 가하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의 본격적인 건설작업이 추진되는데, 1956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채택되었으며, 대중지도의 사상·방법으로 청산리정신과 방법이 제시되었고, 사회주의 건설시기에 알맞는 경제관리체계로 대안의 사업체계와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이 제기되었고, 전인민적 방위체계가 수립되어 자위적 국방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사회주의의 「3대 혁명소조」라는 특수조직에 의해 3대혁명운동이 추진되었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속도전, 주체농법의 관철,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정책,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71년~76년), 제2차 7개년계획(78년~84년)의 성과적 추진으로 인민생활이 향상되었고 사회주의적 제도가 공고화되었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계속혁명단계는 공산주의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전단계로서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도시와 농촌, 노동계급과 농민계급간의 차이 해소」「전인민적 소유제도의 실현」「높은 생산력과 생산수준」등의 조건이 실현될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현재의 상태에서 볼때, 「국제적 분업의 결여로 인한 경제수준의 부분적 낙후」「파중한 군비부담」「중공업우선정책으로 인한 소비재부문의 상대적 저발전」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4. 북한의 대중운동과 경제관리체계

북한의 대중운동방식과 경제관리체계로는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속도전, 3대혁명

소금상자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모든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무기명·가명이 아닌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게끔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거래에서 무기명·가명의 사용을 인정할 경우, 타인에게 증여여부·상속여부등 사용내역의 불분명으로 인해 실제소유자에게 막대한 탈세를 허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근로소득자와 금융자산소득자간의 조세부담 불평등을 야기시키게 된다.

그러나 최근 국민여론의 절대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증시침체와 기업자본축적의 부진등 경제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은 이의 전면유보를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자본가의 비생산부문에서의 부당수익을 묵인시켜주는 것이다.

대학신문광고 질서회복을 위하여 — 넷. 우리모두는 대학신문 발전의 주체임을 인식한다.

「기획광고 넷」부터 공대위의 공식명칭을 「광고질서회복을 위한 악덕광고대행사(이전;악덕기업) 추방 공동대책위원회」로 변경하게 됨을 알립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세가닥?"

예로부터 선조들은 정성을 다해 튼튼한 동아줄을 꼬아왔습니다.

힘든 농사일을 끝내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벌이는 마을잔치에는 줄다리기, 고싸움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훈훈한 자리.
정성스레 꼰 튼튼한 동아줄이 있기에
우리민족은 한마음으로 힘차게
대동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대학신문의 「광고질서회복을 위한 악덕광고대행사 추방운동」또한
튼튼한 동아줄로 엮어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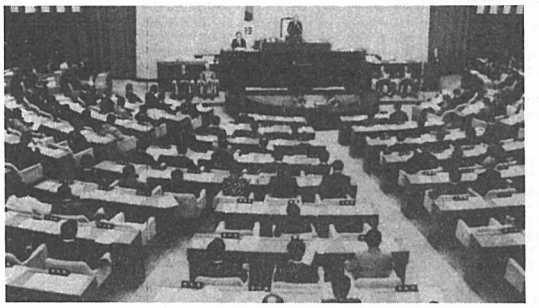
대학인, 대학당국, 학생기자 세 가닥이
엮어가는 대학신문 발전의 동아줄.
세 주체가 튼튼한 한가닥 한가닥이 되어
대학신문이 건강하게 자리매김되는 날!
그날을 위해 지금은
대학인, 학생기자 그리고 학교당국 모두가
「광고질서회복을 위한 악덕광고대행사 추방운동」의 동아줄을
튼튼히 꼬아야 할 때입니다.

■광고질서회복을 위한 악덕광고대행사 추방 공동대책위원회

「한대신문 의 「광고질서회복을 위한 악덕광고대행사 추방운동 에 공대위는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 입니다. 한대신문 제작중지 즉각 철회하라!!

정치놀음으로 전락한 지방자치제

김 광 동
〈서학·영어4〉



인류 역사상 인간은 여러가지 규범을 만들어왔다. 인간이 만든 가치의 규범중 가장 훌륭한 것이 민주주의라 한다면 이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지방자치제를 빼놓을 수 없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자율 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지극히 근본적인 민주주의 이론에서 출발한 것이다.

1948년 7월17일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제1공화국이 막을 열었다. 1공화국은 시작부터 정부형태에 논란이 있었으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회에서 지지세력을 확보하지 못한채 헌법에 의해 이듬해인 48년8월20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이승만의 입장은 지자체의 조속한 시행보다는 그 자신의 지지기반 확보와 강력한 정부형태를 구성하는데 역점을 두므로써 이의 시행을 미루어오다가 마침내 「기존의 자치법의 법리적 모순과 문제점을 시정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제정 4개월만에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는 이승만의 정치적 프로그램에 지자체가 전적인 제약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을 일찌감치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을 겪게돼 52년4월까지 지자체의 핵심인 지방의회 선거조차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이승만은 차기 집권 가능성을 우려해 지방의회 선거를 전쟁 와중에서도 실시하였다. 결국 친여세력이 다수 당선되었고 이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하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경찰과함께 관제데모까지 일으키게 되었다. 56년 2월 10일 이 정권은 지자체 법안을 자신에 유리하도록 개정해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했으나 야당후보가 예상을 깨고 부통령에 당선하자 지자체 법안을 또한번 개정하였다.

결국 4번의 개정을 통하여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심분 이용해온 독재의 근성은 결국 사상유례없는 3.15부정선거를 저질러 4월혁명을 유발시켰으며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후 등장한 민주당 정부는 지자체법을 전면 개정하고 민주정치를 위한 발판을 다지려 했으나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자치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는 조국 근대화라는 미명아래 외자 증심으로 저임금 저곡가 정책과 행정 능률의 극대화라는 명목으로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중앙의 강력한 통제아래 묶어두고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획일적 지휘 통제체제를 구축하여 관료적 중앙집권체제를 한층 강화시켰다.

80년 5월 광주학살을 통해 연이은 군사정권이 수립되고 이들은 자신의 비롯어진 정통성을 바로 세우려고 강권을 휘두를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학정에 시달려온 국민은 마침내 87년 6월항쟁을 일으켰고 수세에 몰린 정권은 국민대중의 욕구를 폭력으로 억누를수 없음을 판단하고 이 젤수없이 6.29선언을 통하여 대 국민 무마책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지방자치의 재실시 였다.

그러나 현 정권은 과거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지자체를 자신의 집권유지의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하려함을 보여준다.

역대 독재 정권, 집권유지 방책으로 악용
민자당,지지기반 취약으로 미루기 작전펴

지난 연말에 타결된 지자체 법안을 살펴보면 이들이 추구하려는 저의를 파악할수 있다.

그 첫째가 자치단체의 종류이다. 이 법안에는 자치단체의 종류를 시·도및 시·군·구로 한정하므로써 실제지역구민과 가까운 읍·면 지역의 지방자치를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군(郡)은 인구와 면적 면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들째로 헌행법의 부칙에는 지방의회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일시를 차등화 시켜 놓았다. 이는 실제 영향력이 큰 단체장 선거에 대한 집권세력의 부담을 고려한 정치적 의도로 볼수있다. 셋째로 헌행법 97조에는 단위의 부 단체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어 결국 중앙정부의 간섭과 단체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려 하는 점을 들수있다. 또한 118조에서는 대통령에 의해 법률규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하므로써 대통령이 필요에따라 입법권을 제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점을 주목할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속적인 국민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의로 끝난 이번 임시국회의 「지자체 입법안」의 난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자치제 실시는 결국 요원한 것임을 알려주는 듯 하다.

지난 12월에 이뤄졌던 「지자체에 대한 합의」마저도 여소야대 시절에서나 볼수 있었던 아득한 추억이 되어 버린 것이다. 민자당이 정당추천 배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합당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성과 자신감마저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민자당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는 날이 갈수록 비판일로에 있으며, 특히 합당이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군조직법」·「광주문제보상법」에 대한 거대보수여당의 입장은 자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추천제가 하용될 경우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군동은 물론 자신들의 「최후의 보루」라 할수 있는 대구·경북지역에까지도 「민자당흑색이미지」와 지방의회선거를 「3당합당 부당성을 폭로하는 정치장(場)」으로 만드려는 평민당의 의도에 말려들어 선거의 완제를 보장(?)받아 놓은 셈이 될것은 자명해진다.

정당추천을 배제할 경우 민자당의 「흑색이미지」를 깔고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폭독각시를 내세워 부정한 입지를 지방에서부터 뿌리내리겠다는 의도인것이다.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또한 엄격히 규제한다는 민자당안(案)은 「경제위기·정당정치상시기상조·지역감정 유발로 인한 국민분열의 심화」라는 명목아래 민주·공화개 민자당 의원들을 비롯한 「지역구의원소환」등을 요구하는 지방 유권자들의 강한 「반민자당 여론」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에 다름 아닌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출범부터 정통성 문제로 진통을 겪어온 현 정권은 지방자치제라는 대국민 무마책의 미끼를 던졌으나 장기집권을 노리는 측면에서 볼때 지자체 실시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3당 합당은 향후정치 일정에 기존의 통치일변도를 민감하게 대처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표출하는것이고, 앞으로 있을 차기 대권방향이 지방자치제의 결과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게될것을 우려 하기 때문인것이다.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차행되온 위로부터의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결국 지자체를 통해 탈피할수 있을지 이번 임시국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은 비관적인 우려를 금할수 없을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지자체의 성공여부는 지역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요하고 있다. 사실상 실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 빠져있는지금 무엇보다 시급한것은 기존정치인들의 당리당략과 기회주의 근성에 국민의 따뜻한보살핌(?)일 것이다.

대구 서갑선거, 「민중후보」에게 듣는다

인터뷰

『대구 서갑 선거는 반 민주 3당 야합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대가 돼야 합니다』

보수대연합의 명분 찾기의 일환으로 6공정권에 의해 정호용씨가 밀려나므로써 4월3일 13대들어 세번째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대구서갑구는 26일 정호용씨의 후보 탈퇴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대구 서갑 선거에, 일간지에서는 겨우 이름석자만 비춰지고 있는 「민중후보」김현근 (32 진보정치연합 대구지부 위원장)씨가 출마를 하였다. 과연 김현근씨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참여를 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김후보를 만났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기는 3당야합을 정당화 하기위해 보수 대연합의 논리를 통한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현 정권에 심각한 배신감과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학생·도시빈민·양심적 지식인등을 묶어내고 보수대연합, 즉 반민족적 행위를 대중적으로 홍보하고 민중들을 정치 세력화하는데, 선거라는 계기를 활용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대구를 제외한 전지역에서는 김현근씨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잘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소개와 약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이곳에서 마쳤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하면서 진정한 민주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학생운동에 관여하게 되었지요. 그런 과정에서 78년 「유신철폐」를 외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1년여의 수감 생활을 했고, 학교를 졸업한뒤 인천 「대림통상」등에서 노동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뒤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느껴 진보정치연합 대구지부위원장 등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정호용후보가 노대통령과의 면담뒤 들연 사퇴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용씨 개인을 봤을때는 후보사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후보의 사퇴는 현 정권과의 권력다툼에서 타의에의한 사퇴가 분명하므로 현정권 스스로가 그 도덕성을 훼손시킨 행위로 규정짓고 싶습니다.

—현재 선거운동원들의 구성과 각 민중 세력과의 연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같은 경우는 대구·경북지역 민족·민주운동 연합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선거원들도 대부분 그들입니다. 그리고 대구지역 노동조합 협의회와 대구 경북지역 총학생회 연합 건준위 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대·경북대 등에서는 대책위위원회 까지 만들어 자체 조직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번 정후보의 사태로 정씨측 고정표가 문희갑씨 한테 흐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김후보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도는 어떤지…

▲실질적으로 지역적 특성상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2년전 선거에 나왔을 때보다는 민중들의 의식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투쟁사업장을 방문할 때의 열렬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한 후보로써 이번 선거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선거가 반 민주세력 대(對)민중진영의 일대 격전이라 보고,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는 3당 통합과 보수야당의 본질이 폭로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척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텐데요….

▲무엇보다도 선거자금이 부족한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홍보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어 이번 선거를 가진자들만의 타락한 선거가 아닌 민중들의 기본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의 장(場)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분들의 격려성금, 학생들의 모금, 판매사업등으로 해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향후 민중의 정치 세력화와 대구지역 민족·민주운동의 질적인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습니다. 대구지역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조직적 결의로 민중후보에 나선 만큼, 이후 선거의 결과를 기초로 민중진영의 정당성을 대중 속에서 확인하고 대구지역 민중운동의 기반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선거운동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외된 민중들인 노동자·도시빈민·학생들의 호응이 절대적인 만큼 앞으로는 가두홍보 등을 통해 중간층을 끌어들이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민중대표 다수가 국회에 진출하여 권력과 제별이 장악한 기존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올바른 사회민주화를 이루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며, 나아가 민중의 대변인, 민중을 위한 정치인이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청년학생들에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청년학생이 사회민주화에 거다란 세력으로 자리해온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향후 청년학생들이 더 많은 지지와 힘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에게서 배우고 대중 속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배우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진 기자〉

미네르바

▲이른 아침 공장을 향해 가는 노동자의 두 다리에는 가족들의 안스러운 바램이 있다. 오늘도 아무런 사고가 없이 돌아오라는. 공장을 들어서는 노동자의 두 눈에는 이 땅을 향해 던지는 희망사항이 있다. 사장앞에서 자신이 노동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큰 소리칠 수 있고,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고 토요일은 정겨운 가족들의 웃음소리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때가 곧 오리라는 희망말이다.

▲채 끝지도 못한 무우를 하루 새끼씹으며 한숨짓는 농민들에게도 바램이 있다. 수입 농산물에 우리가 만든 농산물이 피해 입지 않고, 1년내내 허리굽혀 지은 농사 여기저기 밤상에 올라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제값 못받게 하는 저 높은 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매운 고추맛을 보게 해줄 때가 오리라는 희망이다.

▲철책선이 갈라 놓은 한반도 남쪽 사람들에겐 여런 바램이 있다. 전세값이 제자리를 찾아 10년 동안 꿈꿔왔던 내집 마련할 수 있고, 「구국의 대결단」(?)을 다짐한 사람들에겐 이 시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고, 내 형제 내 부모 그리운 사람들에겐 철책선이 사라지게되는 때가 오리라는 희망이다.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라는 우리에겐 이런 바램이 있다. 먼저 반반한 직장에 취직하고, 계속되는 승진으로 한 기업의 중진으로서 자리잡겠다는 출세와 돈벌이에 대한 바램이 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이 현실을 뜨겁게 안은 젊은 가슴을 실천하려는 용기속에 풀어 놓는 바램이 있다. 7천만 겨레의 희망들이 큰 빛을 발하는 그날에대한 희망말이다. 단지 내가 바라고 있다고 그 날이 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너와 나의 손이 굳게 맺어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이 나라를 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실천이라는 것으로 보여질 때 희망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류〉

빛나는(?) 희망사항

바톤을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찬란한 존재다.
갈채도, 스포트라이트도 모두 그에게 쏟아진다.
그렇다고 다 지휘자가 되기를 고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베토벤 심포니 9번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바이올린도, 트럼펫도, … 첼로도 있어야 한다.
30분을 카운터 뒤에있는 약방주인처럼
우두커니 서 있어야하는 팀파니 주자도 있어야 한다.
그 뒷자리를 지키는 팀파니가 없다면
"환희의 송가"는 감동의 반을 잃어버린다.
눈여겨 보는 이 없어도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두드러져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잘 어울리기 위해서.
사회도, 화사도 하나의 오케스트라.
한일그룹은 전체의 하모니를 위해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숨은 일꾼들에게 뜨거운 갈채를 보냅니다.

韓一그룹
한일합섬, 목재상사, 금남모직, 동서식품㈜, 부국증권, 하이트, 리첸시 — 제주, 하이트리조트 — 부산, 진해화학, 롯데건설㈜클럽, 한효개발, 한효건설, 연합물산, 한일레저개발, 한효제다

팀파니 奏者에게 갈채를—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두드러져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잘 어울리기 위하여

최근 동독총선을 계기로 본

독일통일의 성격과 문제

강연정리

한겨레사회연구소 월례발표회

발 표 — 원성묵(한겨레 사회연구소 국제분과 연구회원)

서독 콜 정권의 대규모 경제지원 공약과 막대한 선거자금 제공은 동독총선에서 「독일연합」이 승리하게 된 일차적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동독선거에서 콜세력의 승리는 올해 12월로 예정된 서독선거에서도 콜이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통독을 둘러싼 독일 내부의 대립(통일방식, 통독과 나토와의 관계, 플란드와의 국경선 문제를 포함한 관계국과의 평화조약체결문제등)에 있어 보수진영에 유리한 역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계기로 급부상하면서 지금까지 진전되고 있는 독일 통일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독에서 발생한 정치·경제적 위기의 원인, 성격을 고찰함과 아울러 콜의 통독전략이 갖는 내용 및 지향성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동독의 위기는 다른 동구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스탈린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당적지도의 관료화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위기의 요인으로서 경제적 위기를 들 수 있다. 사실상, 극심한 인플레이션, 필수적 일상소비재 부족, 과도한 채무누적에 시달리는 플란드, 헝가리와는 다른 경제의 상대적 안정속에 동독의 문제는 극심한 산업간의 불균형이었다. 이러한 산업간의 불균형은 소련과의 경제관계에 있어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코메콘」정책에서 기인한다.

당시 소련은 경제면에서 동독에게 4대과제를 부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소련정책의 중화학공업화, 농업의 기계화 및 교통, 통신망의 사회적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한 생산재, 투자재의 공급국으로서의 역할 둘째, 소련의 원폭생산과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우라늄광의 공급국으로서의 역할 세째, 동독의 서방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서방측의 선진기술을 전달하는 파이프로서의 역할 네째, 군수생산의 과제, 이것에 의해 소련은 자국 공업의 민수생산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가 확대·강화되면서 동독의 국민경제는 자립적으로 계획, 관리, 운영되지 못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국제체계 전체의 재생산 구조의 일환으로 위치지워졌다. 자국경제의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생산재, 투자재의 생산이 강행되고 국내민수생산 능력은 크게 저하됨으로써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증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써 동독 개혁경책의 기본방향은 「시장을 중시하는 사회주의계획경제」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선진자본주의국과 호혜의 원칙하에서 무역확대 둘째, 서방측과 합작사업, 공동투자의 착수 세째, 경쟁원리와 실적평가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것 네째, 재정재건을 위한 세제개혁, 거액의 재정지출로 유지되었던 기초 소비재와 공공요금 등의 가격의 현실화 등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은 서독의 자본, 기술적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며 실제로 동독의 모드로 내각은 서독 콜정권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콜은 모든 경제원조를 동독총선이후로 미루며 동독유권자들에게 동독우파의 승리를 위한 미끼로 제시했으며, 결국 총선을 통해 동독의 개혁 사회주의자들이 바라는 경제개혁은 콜의 통독전략속으로 흡수되었던 것이다.

그럼 여기서 서독 콜정권의 통독전략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콜이 제안한 통독내용은 동독에 대한 긴급원조를 통한 「사회 경제기반의 동 수준화」, 「동독의 국내민주화 및 경제적 시장주의화 정도에 따른 양독 협력관계의 확대와 심화」, 「전유럽협력체제·평화질서 조성에 따른 독일의 제통일」이라는 3단계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 제안은 통독과정의 단계적 추진을 선언한 것이기 보다는 사실상 양독의 일체화를 추구해 가겠다는데 그 본질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사실 이 제안의 주내용 이외에 콜이 언급한 내용으로써 서독이 목적하는 통독은 「사상상의 독일 일체화, 즉 경제의 일체화」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동독경제의 흡수합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통독방안은 서독우파의 전통적인 통일정책으로써 「유일대표성의 원칙」, 「자유측의 통일」, 「통독의 괴뢰정권 붕괴 정과 동독의 국제적 고립화」등으로 요약되며, 이 주장은 공산주의를 군사적으로 제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킴으로써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즉, 급격한 정치통합보다는 경제관계의 긴밀화, 나아가서는 경제적 정복의 중요성에 의의를 둔 것이고 이후 정치적인 통합을 사실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치·경제적 위기에 처한 동독 모드로 내각의 입장에서 통독문제에 대한 대책은 예츠부터 대중적 통일요구와 서독으로부터의 경제원조의 필요성에서 나온 수세적인 대응책이었다. 그리고 콜은 앞서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드로의 필요적 통독타협안을 일종의 합복문서로써 변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서독은 동독을 흡수합병하는데 드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당해낼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서독의 동독에 대한 막대한 선행투자는 독일통일이라는 장래의 내수 및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선행투자이며, 동독으로의 원조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것은 동서독의 일체화를 촉진한다. 서독이 현재 조속한 통화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통독을 둘러싼 그간의 대립관계는 급속한 경제통합을 통한 정치적 통일을 추구하는 동서독의 보수세력과 동독에 대한 서독의 경제원조가 선행되는 점진적이고 질서있는 경제통합, 나아가 역시 점진적이고 질서있는 정치통합을 추구하는 동서독 사민당 및 좌파세력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역관계에 있어 전자가 분명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면 좌파진영의 구상자체가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동독의 좌파세력은 위기의 극복을 위해 선거와 통일을 수용했으나 그것이 바로 위기격정세하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동독의 존립근거 자체를 무너뜨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독총선에서 콜이 지원한 독일연합이 압승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전 보수세력의 의석이 개헌전 3분의 2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서독헌법 23조에 따른, 동독의 독일연방으로의 흡수합병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제정과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겪어야 할 것이다. 또 올해 12월의 서독총선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그 노선 자체가 수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추인수기자〉

학술정보

■제3기 평화강좌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에서는 「평화문화의 정착을 위한 한국사회내 부문갈등의 이해」라는 주제로 오는 3월30일(금) 오후3시부터 고대 정경관 세미나실에서 제3기 평화강좌를 실시한다.

〈교육〉

△3월30일(금): 참교육을 위한 교사와 교육정책의 역할—이부영(전교조 부위원장)

△4월6일(금): 교사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한국교총의 역할—김종철(덕성여대교수, 한국교총고문)

〈문학〉

△4월13일(금): 한국의 현대문학이 지향해야 할 이념의 문제—김원일(작가)

△5월4일(금): 한국의 순수문학과 민족문학—조정래(작가)

〈여성〉

△4월27일(금): 한국 여성학의 현황과 과제—장필화(이화여대교수)

△5월11일(금): 한국여성의 법률적 지위—이태영(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영화〉

△5월25일(금): 한국영화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한 방향모색—정진우(영화감독)

△6월1일(금) 미국영화직배에 직면한 한국영화의 발전방향—정지영(영화감독)

무료공개강좌이며 문의는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920—1812~3)

■도시빈민연구소 월례토론회

도시빈민연구소에서는 「지방자치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3월28일(수) 오후7시부터 협동교육원에서 월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실시될 예정인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와 최근 정세에 따른 각 정치세력의 입장을 듣고 이후 지방자치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I. 지방자치제란 무엇인가

발표: 정기영(한국사회연구소 연구원)

II. 지방자치제와 우리의 대응 방안

1. 지자체 실시의 배경과 각 정치세력의 동향

발표: 유지호(민주쟁취 국민운동 서울본부 간사)

2. 지자체에 대한 빈민, 지역운동의 방향

발표: 나효우(기독교 도시빈민 선교협의회)

문의는 협동교육원(334—0748), 도시빈민연구소(701—9004)

사람소묘

이 수 진

강철같은 인간

최근 「탈스탈린주의」라 불리우는 동구개혁 바람과 함께 스탈린 제평가작업이 국내외에서 한창 진행중이다.

국제공산주의 운동 역사상 유례없는 격론을 불러일으킨 스탈린, 그는 진정 누구인가?

우리에게 거만한 독재자로서 알려져있는 그는 수많은 억측을 불러일으킨 행동과 정책으로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음은 사실이나 서방 부르조아학자들이 부르짖듯이 그를 평가해서는 안될 일이다.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하여 스탈린주의와 당시 소련 사회주의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스탈린을 평가할수 없으리라 사려된다. 더불어 현존하는 사회주의 개혁의 전망을 내오는 데 있어서 그의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은 중대한 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후일 그의 태도와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의 성장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879년 흑해연안의 조오지지방 어느 제화공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본명은 비차리온 이바노비치 주가쉬빌리이다.

스탈린이라는 명칭은 1905년 레닌에 의해 발탁된후 당에서 공식적으로 불리워진 필명으로써 「강철같은 인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어감이 레닌과 비슷하다는 것은 그가 레닌의 열렬한 모방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성장기를 가난과 찌든 삶틀속에서 술주정뱅이 아버지로부터 매질을 당하면서 보내게되자 그때부터 그 특유의 분노와 복수심을 불태우게 된다. 작고 약한 것이면 무엇이든 경멸을 표하며 동정심을 보이지 않는 인간이 된것이다.

학창시절 큰 감명을 받은 소설 「부친살해법」의 주인공인 용맹하고 영웅적인 투사이자 정복자로 묘사된 「코바」는 스탈린 의 미래이상향이었다. 그는 제2의 코바이길 원했고 당및 조직에서도 그러나 「어떠한 투쟁이건 그 목표는 승리」라고 그가 말했듯이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영웅적 인물이 되려고 했다. 최고권력자가 되어서는 폭정을 함으로써 모두를 공포에 떨게했고 아마도 내심 큰희열을 느꼈을것이다.

중공업 육성정책, 경제적 성과, 문맹퇴치, 문화사업 주력등 스탈린의 공적은 무수히 많다. 또한 당시 소련내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스탈린은 반감을 사기는 커녕 신봉받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긍적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도 실로 엄청나다. 수천만명에 이른 숙청과 집단학살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만행등을 살펴볼때 스탈린은 레닌의 진정한 인간적 사회주의의 원리를 완전히 왜곡시켰다고 평가된다. 레닌은 유언장에서 「난폭함과 정적에 대한 악으로 가득찬 스탈린」을 염려하면서 서기장직을 계속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있다. 그러나 당시스탈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댓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것이다.

역시 스탈린에 의해 암살된 영원한 숙적 트로츠키는 스탈린을 가리켜 「혁명의 무덤을 파는자」라고 일갈한 바 있다.

스탈린주의를 「프로크라스테스의 침대」라고 특징짓는데 공감한다. (주: 침대를 먼지 짜놓고 사람의 다리를 자르는 형태) 그러나 스탈린에 대한 또다른 왜곡은 소련역사 전체의 왜곡을 낳을 것이므로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스탈린 개인성격과 특정사회형태를 낳은 사회조건의 양 측면이 변증법적 통일을 이룬 스탈린 연구가 요청되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할 과제의 하나로 남아있다.

〈대학원 동구 지역학과 석사과정〉

이 책

알기쉬운 오월의 책

만화로 본 사회과학의 세계

인간의 두뇌체계는 말이나 글과 같은 문자적 체험이전에 시각적 체험을 먼저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릴때부터 그림책을 보며 혹은 사물을 직접보며 하나하나 사회현상들을 배워나간다.

근대산업사회에 이르러 인쇄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형성된 예술양식인 「만화」는 이런 인간과의 친숙한 관계속에서 더욱 더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게 된다.

80년대를 정점으로 우리사회는 각 분야에서의 민주화요구 분출,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이후 급성장한 노동운동과 함께 만화현실도 여러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다. 예전에 아동에 한정되어 있던 대상범위도 성인까지 확대되었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말초신경의 자극적 흥미유발, 오락적 폭력성, 소비욕구 충족등의 내용위주에서 벗어나 현대산업사회의 빠른 정보전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정치 사회 문제를 주제로 풍자하는 정치적 참여의 길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만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고 있는 즈음에 도서출판 「오월」에서는 사회과학의 이론들을 읽기 쉽게 10권에 걸쳐 만화시리즈를 기획하였다. 이 책들은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만화의 「친근짚」이라는 효과를 최대한 살려 사회과학적 교양들을 그림과 글을 상호조화로 제미있게 설명해준다.

평소 사회과학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그 방대한 범위와 쏟아져 나오는 많은 이론서들 속에서 무엇부터 읽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는 독자들에게 사회과학적 이론을 습득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제1권은 마르크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것으로 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철학의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2권은 모택동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본 중국 근현대 민중항쟁의 측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3권은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인 위치때문에 제국열강의 침탈을 당했던 루바민중들의 독재타도 혁명사와 혁명의 지도자 카스트로의 반제투쟁의 헌신적 행적을 그리고 있다. 제4권은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사에 있어서 소중한 승리의 기록인 니카라구아 민중투쟁사와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다. 제5권은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제국주의 열강을 물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레닌의 생애를 통해 러시아 혁명사를 조명하고 있다. 제6권은,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무궁한 혁명정신이며, 자신의 계속적인 혁명활동만이 혁명가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이라는 「게바라신화」를 남긴 루바반제투쟁의 선봉장 체게바라의 일대기이다. 제7권은 레닌이 지적한 「소비에트당에서 가장 충중한 인물」이었던 트로츠키의 생애와 사상이다. 무욕과 억압으로부터 혁명권력의 정상에까지 트로츠키의 인생역정을 추적하고, 그의 「영구혁명론」과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과의 격렬한 사상투쟁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제8권은 근간으로써 프로이드 못지않게 정신분석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태생 라이히의 생애와 사상이다. 프로이드의 좌파이고,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정치적 성향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소개가 되지 못했는데 4월중에 출판될

예정이다. 제9권은 프리에, 마르크스, 바쿠닌, 파농등 사회주의 도래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행적을 그려봄으로써 파연 사회주의는 무엇이며,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가」라는 관단의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제10권은 핵에 대한 이야기로, 심각하고 복잡한 전문적 지식을 명료하고 읽기 쉽게 또 재미있게 풍자화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우리들은 이 책을 통해 가공할 핵공포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쇄원자력이라는 특급열차를 철로에서 이탈시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학술부〉

작은 꿈들이 모여 힘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1

"형! 하늘위로 날으는 자동차는 만들수 없는거야?"

만들 수 있지. 자동차에 제트엔진을 달고 날개를 붙이면 된단다.
그렇지만 날을 수 있다고 바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늘엔 길이나 신호등이 없으니까 많은 차들이 함께 날아다니면
위험할거고, 우리집 마당이나 옥상같이 좁은 곳에도
착륙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들이 많이 필요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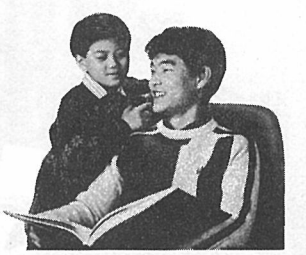
날으는 자동차가 있으면 교통혼잡도 없어지고,
가고싶은 곳은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을테니까 훨씬 편하겠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아마 멀지않은 미래에는 날으는 자동차가 나오게 될거야.
어쩌면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땐 날으는 자동차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아니, 우빈이가 지금부터 꿈을 갖고 연구해서 만들어 보렴.
지금까지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 크고 작은 발명품들도
처음엔 모두 작은 꿈으로부터 시작했단다.

날으는 자동차 발명가 서우빈 — 정말 멋지고 신나지 않겠니?

H대 기계설계학과 2년 서우빈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은 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HD 現代自動車

노래 특집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누구나 어린시절 막연한 무지개를 부르며, 그리고 공연한 기러기를 부르며 갈수없는 나라에, 잡히지 않는 이상에 허무한 꿈을 키운적이 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귀틀 파고드는 낯선, 하지만 코카콜라같은 버릴 수 없는 끈질긴 유혹의 외제음악에 취해 청소년기를 보낸 기억 또한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노래는 더 이상 하릴없는 사랑에찬혼자들만의 소유도 또 타인의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과 축복에 몸둘바 모르는 이들의 소유이어서도 안된다.

산너머 무지개같은 알 수 없는 나라로 떠나는 기러기노래가 아닌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할일이 무엇인지 알게하는 진실의 노래를 불러야 할때다.

〈편집자〉

이제는 건설의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인 터 뷰

△대담자:윤민석〈노래운동가〉

최근 많은 대학인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전대협전군가」「애국의 길」「지금은 우리가 만나서」「결전가」등의 작곡가인 윤민석씨를 만났다. 아직 민중가요작곡가로서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학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윤민석씨는 역시 이날도 지난 3월24일(토)에 연세대에서 있은 노래공연 「자, 우리 손을 잡자」준비를 위해 매우 바쁜 연습중에 잠시 틈을 내어 본보기자와 만났다.

▲우선 언제부터 작곡을 시작하셨는지 알고 싶은데요.

—곡을 처음 써본 것은 국민학교때 부터였고 나름대로 뜻도 모르는 사랑타령을 작곡했던 것은 고등학교때 부터입니다. 그 때는 그룹사운드를 만들어 활동을 하였고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가요제에 나가보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란 곳에 들어와 생각이 바뀌게 되었지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민중가요에 관심을 가지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같은 경우 노래운동에서 노래를 하다가 운동의 필요성을 느꼈다기 보다는 운동을 하면서 노래운동이 내가 갈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요. 그러면서 노래의 강한 힘을 깨닫게되었고 이것이 나의 능력을 변혁운동에 최대로 발휘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생각을 갖게되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만큼 다른 음악도 많이 들으실텐데 주로 어떤음악을 자주 들으십니까.

—대중 없어요. 유행가 판은 없지만 클래식도 듣고 그중에는 소련에 쇼스타코비치등 사회주의 작곡가의 곡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곡을 듣다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서양음악을 들으면서 나의 음악이론이 발전한들 무슨 소용있겠는가라는 고민도 생기고 지금의 민중가요는, 가사는 우리민중의 정서를 표현하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은 서구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판소리에서 두레패의 사물놀이에까지 우리고유의 음악을 목적의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품에 반영되어 우리정서를 우리그릇에 담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지 않겠어요.

> 아직까지 내면에 가시지 않은 양키 문화 음악정서를 씻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최근 민족민주운동 작부분에 가해지는 탄압을 보았을때, 선도적인 노래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운점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은 우리조국이 식민지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감옥에 갇힌 갔다 온적이 있지만 곡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 탄압이라고 보진않습니다. 우리가 발딛고있는 모든 곳이 전선이라 할수 있고 실천적인 창작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어려움보다는 저의 내면속에 체화되어 있는 음악정서가 완전히 양키문화에 젖어있고, 그것이 우리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부분은 더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지요. 실제로 재즈나 발라드풍의 리듬은 쉽게 기억하면서 오방진이나 진오방진 가락등의 우리것은 몇십번 입으로 되뇌어어야만 익숙해지지 든요.

▲최근 대학가에 큰 호응을 얻는 「애국의 길」등 자신의 곡이 일반 학우에게 불려지는것을 들었을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 노래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적어도 우리민족의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곡들이 많아 「이것이 우리의 노래다」하고 내놓을 만한 곡을 만들어야한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흔히 우리사회에서는 민중가수, 작곡가들을 대중가수, 작고가들과 구분지어 이야기하고 실제로 정태춘씨 같은 경우도 대중가수가 민중가수로 전향했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것에대한 견해는…,

—민중가수나 작곡가라 하는 것이, 그냥 우리들이 하는 일이 민족·민주운동이기 때문에 민중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막상 민중작곡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정의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중가요와 대중가요의 차이점에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지요.

—실질적으로 아직 노래운동의 역사가 짧고 노래운동의 역량축적정도도 일천해서 양식이나 기법면에서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민중가요도 대중가요와 마찬가지로 재즈, 발라드, 군가풍등으로 형식을 나눌 수 있기때문이지요. 그래서 흔히 가사에서 그 차이점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사보다 더큰 차이는 대중가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수가 내놓은 상품으로 레코드사나 방송국에서 그것을 선전하고 팔아주는 반면, 「일을 위한 행진곡」과 같은 민중가요는 방송한번 타지 않고 널리 불리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부르는 사람, 만드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의 사상적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현재 대중가요와 민중가요의 보급도라는 면에서 격차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운점이 많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녹음테이프를 하나 내려고 하면 방을 빌리고 온 벽에 담요를 두르고 해서 기타하나와 마이크 하나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 음질이 나빠질 수 밖에 없었고 학생들도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금이나 학생운동을 지지하는 의미로 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발전했어요. 기계만해도 전자악기등 여러가지가 동원되고. 하지만 아직까지 유통체제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뜻합니다. 이때문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대중가요의 유통체계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에대한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처럼 유통체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연심의위원회의 병폐입니다. 기준없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렇다고 노래를 노래로 맞선다면 또다른 문화주의로 빠질 소지가 크고 해서 그것보다는 튼튼한 유통체계와 조직적인 사상과 관념성을 학생운동에서 버려야할 속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노래가사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가자, 동지여」라는 식의 내용은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지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노래속에 노동계급의 당파성을 견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동체적인 현장성에서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체화시켜나가 그것이 몸에 배인상태에서 학생운동의 정서를 담아 일상화시키고 전투화시켜 내느냐는 고민이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 노동계급의 당파성을 학생운동의 정서에 부합되게 일상화시키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승리하는 90년대를 맞이하여 민중가요의 올바른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는 노래라는 것이 좋은 선율과 멋있는 단어의 나열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지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노래는 대중스스로가 주인이 되는노래이고 대중의 이야기가 되는 노래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노래는 적들과의 치열한 싸움속에서 혹은 자신과의 싸움속에서만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운동들이 현실의 모순을 알리기만 해도 집회가 이루어지고 운동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안되고 앞으로는 변혁운동을 하는데 있어 파괴와 건설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위해선 노래속에 새조국의 미래를 담아 넣어야 있어야지요. 저의 곡중에 「애국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노래의 모방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곳에서 북한노래의 비장미와 힘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와 더불어 강렬적 내용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노래들은 민중적 정서 획득과 우리핏줄속의 체화, 이것을 바탕한 우리민족의 진정한 정서표출과 변혁운동의 희망한 미래 제시와 노래속에서 힘을 줄 수있는 그런것이 되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올바른 노래문화정착을위해 대학인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이제, 대학인이라면 우리들의 것에 관심을 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구나 징등을 다루는 것이 탈반이나 풍물패만의 것이 아닌 모든 대학인들의 것이 되어, 풍물을 못하면 대학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우리것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조직화와 정치사상 사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상과 실천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에대한 공부도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공연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긴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엽 기자〉

대중가요와 대학사회

류제홍〈정과·신방4〉

「모든 개인은 예술과 개별적 예술형식들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 개인은 자신의 인격적 발전, 자질, 출생가족, 생활체험 등과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춤·특음악·생활예술과 같은 대중적 영향을 끼치는 예술 및 문화형태들, 즉 「대중문화」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대중적 영향을 끼치는 예술형태들은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이고, 사회적으로 매개되고 제약된 요구들에 부응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변화·발전과 연관지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내의 다종다양한 「문화형태」들중 생활가요와 그 환경을 들여다보면 괄목할만한 「민중문화」의 확산·보급하에서도 여전히 「대학내 인기곡」으로서의 대중가요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고 시기와 국면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의 다기한 변화로써 적절히 적응하며 그 세의 확장과 유지를 지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중가요는 자본유통구조의 지배를 받는다. 한편으로는 대중적 소비자의 두터운층이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곡자, 작사자, 가수, 밴드, 편곡자, 음향기술자등으로 분화된 공급자측이 있는데 이들 효과적으로 강약하고 유통 시켜줄 시장구조가 확립되어 있고, 이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카세트 테이프를 심히 「애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있는지 안듣고 있는지 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들은 단지 음악을 들음으로써 자신에게 아늑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게 하고 싶어한다. 그 분위기를 벗겨버리면 그들은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는 허전함을 느끼고 혼자 내버려져 있다는 불안감과 스스로의 왜소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된다. 일이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음악상품은 심심풀이가 아닌 현대사회의 소외된, 그리고 문화적으로 퇴화한 개인들을 그 안에 적당히 머무르게 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잠시나마 지지멀하게만 보이는 자신들의 현실을 잊게 하고 그것이 허구적인 것이든 실제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스스로를 음악을 통한 동경의 세계에 무영시키며 현실과 유리되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이들 원하고 있구속을 유발 시키기 때문이다. 생존조건으로 부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사용가치 요구중 대중가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할 사회적 치유의 필요는 자신들의 사회적 상태를 특징짓는 결핍, 강요, 그리고 욕구로 부터의 탈피 가능성과 이에 대한 보상 가능성을 지니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 감상적 대중가요는 과도기적 존재인 학생대중에게 체념을 알게하여 스스로의 운명과 화해시키는 결과를 빚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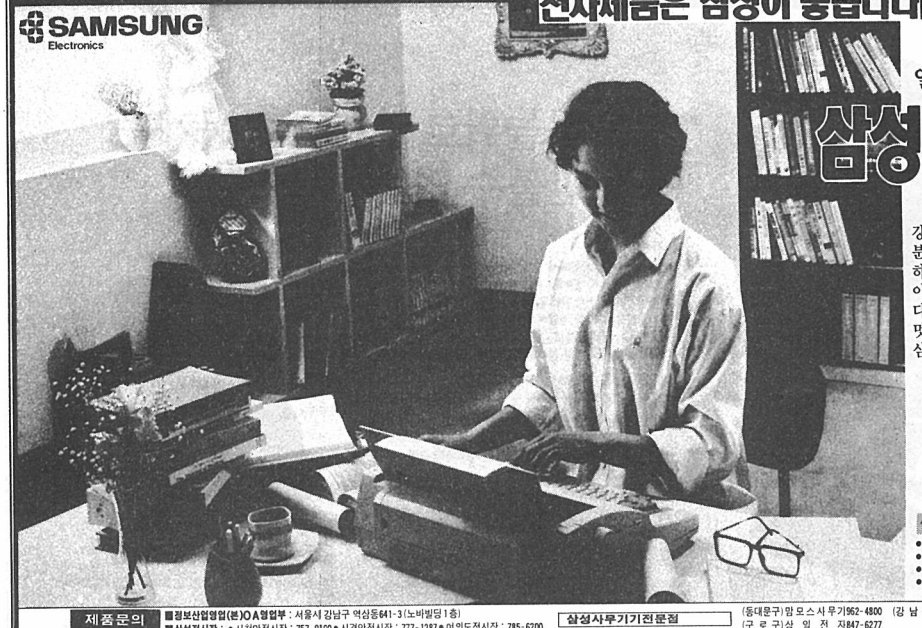
물론 음악상품의 역할은 단지 귀를 심심하지 않게 자극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품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들리게 해놓고」 있을 뿐이라는 점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카세트 테이프를 심히 「애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있는지 안듣고 있는지 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들은 단지 음악을 들음으로써 자신에게 아늑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게 하고 싶어한다. 그 분위기를 벗겨버리면 그들은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는 허전함을 느끼고 혼자 내버려져 있다는 불안감과 스스로의 왜소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된다. 일이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음악상품은 심심풀이가 아닌 현대사회의 소외된, 그리고 문화적으로 퇴화한 개인들을 그 안에 적당히 머무르게 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잠시나마 지지멀하게만 보이는 자신들의 현실을 잊게 하고 그것이 허구적인 것이든 실제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스스로를 음악을 통한 동경의 세계에 무영시키며 현실과 유리되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이들 원하고 있

이처럼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많은 「비판」들에서와 같이 대중가요 「애호가」에게 나타나는 개별적 내지 환경에 의한 정신적 성향과 반응에 대한 단순한 고찰로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해당사자와 집단의 사회·경제적 위치, 사회생산과 재생산과정에서의 그들의 입장, 계급투쟁의 특수한 조건들, 부르조아지 사회의 교육제도 및 대중매체의 효과를 이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본고의 주 논의 대상인 대학생은 자본과 임노동의 구현체로서 행동하기 보다는 특정 생산관계에서 일정정도 자유로운 상태의 과도기적 존재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학생대중의 계급적 토대의 허약성 및 자본주의적 강제가 결합될 때 체제 안주성과 주관적 급진성향을 노정하게 된다. 소위 「대학가요」는 바로 이러한 학생의 존재적 특성으로 부터 기인하는 의식에 적절히 대응하며 그들과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계급적 토대가 허약하고 과도기적 존재로서의 학생대중에게 위안을 주고, 체념을 알게하며, 스스로의 운명과 「화해」(?)시키는 음악, 그것이 바로 대학가의 대중가요요, 이에 우리들 스스로를 자승자박하게 되는 것은 에석한 일이거나 선·악이 아닌 필연인 것이다. 인간의 사회적인 상태는 무엇보다도 인간들이 그들 생활의 생산을 위해서 서로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관계들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제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전제 되었을때 그리고 역사발전 과정에 따른 노래의 역사성이 올바로 전제 되었을때 우리는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에 따른 노래의 필연적 내적 동인을 규명해내고 새로운 사회와 이를 위하고 이에 걸맞는 노래를 준비하는 과제에 올바로 복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제품은 삼성이 좋습니다



SAMSUNG Electronics

알차게 보내야할 대학생활, 그래서 더욱 필요한 —

삼성 전자타자기 하이터치

강의듣고, 자료찾고, 친구만나며
분주히 뛰어다닌 하루 —
하이터치로 내일의 리포트를 준비하는
이순간은 가장 알찬 나의시간.
다시없이 소중한 대학생활을
멋지게 노트해봐야지
삼성하이터치와 함께 —

삼성하이터치 TQ-120의 다양한 기능
●용지폭 12.5인치
●한글·영문 혼용/검용
●완전자동수정(한글·영문)
●다양한 글씨체(영문 12체, 한글 3체)
●굵은글씨 인자기능
●자동밑줄긋기
●100V/220V겸용

*권장소비자가격 : W253,000

휴먼테크 삼성전자타자기
삼성전자

제품문의 559-4721~

■정보산업영업(본)○A영업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641-3(노바빌딩1층)
■삼성전시장 : ●시청앞전시장 : 757-9100 ●시경앞전시장 : 777-1287 ●여의도전시장 : 785-6200 ●구로전시장 : 847-6277 ●역삼전시장 : 561-2700 ●유명백화점시무코너

삼성사무기기전문점
●서울 : (중 구)삼성사무기기777-1287 (서대문구)경 기 O A720-7788
(동대문구)맘모스사무기962-4800 (구, 로 구)삼 일 전 자847-6277 (강 남 구)삼성에니피540-5477 한 일 상 사548-7062
(강 남 구)(주)서도실업561-2700 (주)프로메이커561-0660 중 앙 기 기546-0089 (영등포구)(주)삼성에니피678-4618
(시 흥)우 성 사 무 기807-4521 ●의정부 : 고 려 시 스 템 43-1689 ●안 양 : 대 성 사 무 기 42-8514

노래 특집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우리 노래, 삶의 노래 그 역사를 알아본다

고금의 역사를 들이켜 볼때 우리 한민족은 노래와 춤을 즐겨 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주위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노래가 아닌가 한다. 세살박이 꼬마 입에서, 여든 할머니까지, 온통 청바지를 잘 입는 여자이야기나 나오는걸 보면 말이다.

× × ×

현재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음악문화는 상업가요, 팝송등 대중음악과 소위 클래식이라부르는 고급음악이라 할 수 있겠다.

대중음악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소위 클래식이라는 고급음악은 어렵고 낯선 것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즉 대중음악과 고급음악은 모두 우리 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중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현실을 천편일률적인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 혹은 유한계급과 시각과 정서로 형상화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는 헤방이후 모순에 찬 역사의 흐름과 분단으로 인한 모순의 심화를 통해 자생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민중의 노래문화의 맥이 끊겨진 것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로부터 한반도 내의 독자적인 노래문화는 학생과 지식인들에 의해 발전을 해나간다.

60년대는 대표적 데모가(?)인 「단아단아」, 「바람이 분다」, 「농민가」, 「해방가」등을 불렀고, 70년대에 들어오면서 「홀라송」을 비롯한 노래들을 불렀다. 또 70년대초 포크송 붐을 타고 당시 대학생이자 대중가요 가수인 김민기가 기존의 대중가요와는 구별이 되는 「아침이슬」, 「친구」, 「꽃피우는 아이」등을 만들어 내었지만, 기존의 노래문화, 음악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인 맥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긴급조치가 본격화 되었던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몇편의 데모노래와 김민기의 노래, 그리고 교회 운동권으로부터 들어온 「우리 승리하리라」, 「흔들리지 않게」등의 복음성가류 등을 자산으로 기존의 모순된 노래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운동권(?) 노래문화가 비로소 형성되었던 것이다.

70년대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운동권 노래문화는 당시 학생과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한반도에 성립된 민족노래문화는 그후 80년 광주의 경험을 통해 질적 심화와 양적 확산을 가져왔다. 즉 70년대의 지식인적 감수성과 낭만적 정서등이 광주라는 경험들을 통해 줄더 치열하고 성숙한 운동적 정서로 변화된다. 뿐만아니라 80년대 행진곡풍의 노래는 단순 시위를 위한 70년대 노래가 아니라 깊은 감동을 주는 높은 수준의 서정성을 획득하였다. 즉 「전진가」, 「임을 위한 행진곡」, 「타는 목마름으로」, 「전진하는 새벽」, 「선봉에 서서」,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등의 대표적 노래가 그 예이다. 70년대의 노래들이 소시민적 감수성을 갖는 포크송, 그리고 지식인의 자기 한풀이(?)라는 내용들은 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의 참혹한 파시즘적 통치에 의해 내적인 고민들이 보다 심화된 서정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를들어 「전진하는 새벽」에 나타나는 「새벽」이라는 말과 「아침」이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형상화 해낸 것들이 그 예이다.

80년 광주경험후 노래운동 질적심화

최근에는 노동현장에서 학원으로 유입

80년대 중반의 상대적인 유화국면을 겪으면서 노래문화도 자기나름대로의 자기발전을 해나간다.

「그날이 오면」, 「벗이여 해방이 온다」, 「광야에서」, 「솔아 푸르른 솔아」등등의 노래들이 나오면서 80년대 초반의 비장한 느낌의 단조풍에서 밝은 분위기의 장조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주도권을 잡아가던 학생들은 자신의 존재기반, 즉 이념적 당위성에 의해 선택된 운동의 길이 걸으로는 매우 치열해 보이지만, 불안한 자기의 존재기반을 통해 더욱더 많은 심적 고민을 감당해야 했고, 그 결과 학생운동권의 노래문화들은 넋넋하고 낙관적이며 자신감 있는 정서가 아닌, 울부짖듯 비극적이고 필요이상 엄숙하며, 자신의 투쟁들을 보다 영웅적으로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은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해 나간다. 즉 이제까지의 운동의 주도권이 점차 이전되어 나가면서 노래문화도 같은 변화를 겪어나간다. 기존의 학생,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어 오던 노래문화가—학내에서 노동현장으로 유포되어 「노동조합가」, 「딸들아 일어나라」, 「진노협 진군가」, 그리고 「포장마차」, 「사랑과 행복」등 김호철이 창작한 노래를 비롯하여, 그밖에 「동지여 네가 있다」, 「고백」, 「민주노조 사수가」등의 노동가요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와 노동자층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노동자 노래문화의 실세를 형성하였다.

노동자 노래문화의 발전이 90년대의 노래운동에서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임은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생활의 노래로서 노동가요들, 투쟁의 노래로서 노동가요들이 생활의 진솔한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노래가 가져야 할, 뿐만아니라 가질 수 밖에 없는 자기 역할인 것이다.

『백일씩 심지어는 삼백일씩 계속되는 과업과정에서 「너희는 조금씩 갉아 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는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고, 공권력과 코앞에 대치중인 상황에서 「흩어지면 죽는다」는 비장의 무기와도 다름없었다. 우리는 구속된 동지를 생각하며 「솔아 솔아」를, 진노협 건설의 결의를 다지면서 「이제는 하나다 진노협」을 수백 수천번 외쳐 불렀다』라는 어느 노동자의 말처럼, 민중 연대의 구심으로 우뚝 서서 민주전선의 정면에서 거침없는 진전을 해 나가는 우리 노동자의, 아니 이땅에 억압받는 4천만 민중들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희망을 함께 나누었던 빛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였던 것이다.

손 영 호

〈서양·화란어3: 노래모임 새물결 회원〉

형! 정말 좋으네요

한국인 성을 가지고 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디에서든지 노래를 통한 즐거움의 향유일런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막걸리집에서, 들에서 또는 빨래터에서 마찬가지이다. 대학인들도 예외는 아니며, 이러한 노래들에 많은 고민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현장인 하오의 파티에 한 번 가볼까한다.

신입생이면 누구나 대학인으로서의 신고식이 신·구 대면식일 게다.

담배연기 가득한 식당의 방안에 선배 후배해서 50여명 이상 주위로 서먹서먹한 얼굴로 서로의 안면을 익히느라 풍뎅이 눈알을 굴린다.

반대쪽인 88학번 영호가 아직도 앳된 얼굴이지만 그래도 선배되었다고 마네킹어깨에다 『우리학교에… 자주 만나서…형님히 고민하고 가치관…』

이야기가 전행되는 중에 항상 구석에 앉아서 구석인지 모퉁이에서 기어나와 구석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액센트는 칫음절에 넣어달라고 방방거리는 놈이 고함을 친다. 『야 임마! 영호야 고만 앉그래이! 자 그러면 이 불세출의 오락부장 구석이 즉한 구석이가 사회를 보겠심미다. 먼저 자리 배치를 다시 하고서 시작을 하는 데, 되도록 이면 앙코, 음극이 사이사이 되도록 앉아주이소!

……그라모 됐지예! 고들이 순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겠습……』

저는 부산에서 온 ××고등학교 출신 누구 잘 부탁……, 무슨 부탁을 할 것인지 모르지만 결론은 잘 부탁으로 일단 소개가 끝난다. 소주 잔이 마르고 닳도록 마셔대는 경민이는 여학생 한명 꼬셔볼거라고 『저는 88학번 경민… 다음에 만나면 밥을 사주겠다. 술 한잔 하자!』하며 가래걸린 목소리로 후배를 노려본다.

환락의 오락부장 구석이가 『자! 그러면 이제부럼 한 곡씩 뽑아 보일시다…』 『신입생 선창…』하고 운을 띄운다. 시골티가 팔팔흐르는 한녀석이 『자! 박수』하고 음치 비슷한 목소리로 『사랑만 남겨두고 떠나가나요(앗사) 얄미운 사람…』

중간에 이런 녀석은 일어나 술취한 몸매로 흔들기도 한다. 〈백수 후보자들〉

『…아픔만 주고 간 사~랑』 『자! 다음 저쪽 이마빡에 점있는 여학생 빼지 말고 시작 허시오?』

『안나오면 처들어간다 흘라흘라…』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은…』제법 여학생들도 한 잔에 술기운을 돋구고 방석관을 덜썩거리기도 한다.

『눈앞에 바다를 …남자는 배 여자…』

『일동 박수는 냄비 뚜껑께 지는 소리로 갈겨라? 청춘아!』하며 여태까지 잠잠하던 응식이가 일어선다.

『여러분 반갑십디! 서울말 씰라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잘 안댕겐! 최대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고로 서울말 써도록 허것십니다. 여러분의 노래 잘 들었으며 재미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쑥스럽게 한 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과연 무엇인가? 아니 더 좁은 범위에서 우리의 노래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자리 미자가 「난 놈이여」하고 토를 단다)』

여러분 요즈음 대중가요라 하는 것이 가지는 속성들에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잘물리건넌디유! 신입생이 재롱…) 예!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 얘기해 봅시다. 한참 유행중인 변진섭의 「희망사항」의 가사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첫소절이 「청바지가 잘어울리는여자…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여러분 이 가사속에 대중의 진솔성이 담겨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내용은 향락적 퇴폐문화적 주관적 희망을 표현한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발전도 사회성도 역사성도 전체 대중의 의식도 담지도 않은 일회적 공상물에 불과한데 우리들의 모습을 봅시다. 이 사회의 대중은 얼마나 많은 제국주의 문화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는 (광주에서 본 신입생 영수가 「아하」하품을 한다.) 내용도 모르고 팝송을 국민학생에서 대학생들 아닌 주부들까지 응얼거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란 무엇일까! 우리란 먼저 공동체를 말하고 문화란 공동체 구성원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란 공동체 구성원의 의지를 가락에 담은 삶의 진실성입니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이 노래엔 힘이 있어요 건강성이 있어요

(야! 응식이야 지루한데 노래나 한 곡하고 연설하자! 그래 좋다!)

우리 노래는 민중의 처절한 투쟁의 역사를 담고 어깨에 어깨를 걸고 어우러진 삶의 땀내음입니다! 한 곡 하고 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고 와하! 오빠!…)』

〈차이차 차이차이~차〉

괄~칠년 칠팔~구 투쟁을 동지여 기억하는가, 거제에서 구로까지…

싸우리라 하나되리라…아 해방 그날까지 총파업 투쟁으로(와아! 박수)

대전에서 울라온 종두가 옆에 앉는 장순에게 묻는다. 『노래 제목이 뭐죠』 파업의 의지를 담은 『총파업가』라는 노래라고 대답을 한다.

응식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소주에 붉어진 얼굴을 하고서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이 노래엔 힘이 있어요! 건강성이 있어요! 어깨에 어깨를 건 우리들에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동수가 『임마! 흥분하지 말그래이』하고 허벅지를 꼬집는다〉

이것이 대중문화이어야 하고 이것이 대중가요이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맹목적 유행가 가수의 곡절에 무의식적으로 쏟아넣었던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되찾아 향락적 퇴폐적 자본주의적 문화이데올로기 척결에 두 손을 잡읍시다. 끝으로 모두 어깨를 걸고 합창 한곡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눈망울엔 술기운이 되었지만 응식이의 이야기가 잊혀질지는 모르지만 모두 어깨를 걸고 『아침 이슬』의 가사에 목소리를 담는다.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 슬 치~럼

태양은 묘지……

(어깨를 거머쥐고 있던 손들은 더욱 힘이 들어가고 응식이 열자리에 앉아있는 서울출신 미라가 달빛가족에 나오는 한여인의 목소리로 『힘! 참좋으네요』하며 손에 힘을 준다.)

나 이제 가노라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박수 와아… 2차 가자아…)

〈총문학회 건준위 창작단〉

레스모아 신세대를 위한 2만원대 패션구두

LESMORE
전국대리점개설문의 Tel (02)755-5601~5

W23,000에서 W29,000까지 실속으로 선택하세요

전국지점안내
■명 동 : 774-6666/7
■광희문 : 736-9951
■충 로 : 734-2360
■청량리 : 966-8883
■노 원 : 934-7727
■천호대교 : 477-1044
■신세계본점 : 773-6750
■신세계영등포 : 675-6871
■신세계미도리 : 904-8541
■미도파본점 : 774-8487
■미도파청량리 : 965-8495
■현대백화점 : 563-1937
■자양드림점 : 563-1935
■신 촌 점 : 584-3367
■연 남 : 755-9848
■인천부평 : 3-2656
■오 산 : 8-6538
■안 성 : 73-6802
■안 산 : 84-4572
■부 평 : 522-2567
■영천백화점 : 763-9211
■부천현대쇼핑 : 612-1105
■충북충주 : 43-3113
■충북보은 : 2-2233
■대전동양백화점 : 255-1801
■대전백화점 : 255-8535
■전주코아 : 85-3745
■대구동아백화점 : 421-8248
■대구동아쇼핑 : 254-5929
■인천광복동 : 45-5501/2
■경남마산 : 46-0509
■경남양산 : 84-5905
■경남진주 : 42-1231
■수원전문점 : 774-6666/7

기동취재

일부총학「전대협」탈퇴…그 안팎사정

지난 1월31일 「총청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총총련) 결성을 시작으로 3월6일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 대표자협의회」(이하 대경총대협) 결성등 전대협의 와해를 목적으로한 소위 우익(?)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이화여대, 한양대 학보사와 공동으로 각 지역 취재를 통해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의 실상을 파헤치고 이들 공동취재한다. (편집자)

「자는 전대협을 사랑합니다. 제가 전대협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만든 우리들의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전대협이 우리에게 해준게 뭐가있노?」

「87년 6월 항쟁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당시도 구국개명인들이 바로 이자리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6월 항쟁을 통하여 전대협은 자주·민주·통일을 원하는 우리들의 조직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빨갱이 소리 그만하고 내려가, 이년아?」

지난 22일 계명대 노천광장에서는 4천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학생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11일에걸친 단식에 쇠약해진 몸으로 부축을 받으며, 나온 총여학생회장 김말선(국문과4)양은 전대협의 정당성을 강변했고, 총학간부및 우익(?)을 자처하는 몇몇 학우들은 이에 맞고함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날의 비상학생총회는 계명대 총학생회장 팽용일(법학과3)군이 운영위원회에서조차 논의한바 없이 독단적으로 지난 3월 6일 전대협을 탈퇴해 대경총대협에 가입한데 대한 공개사과와 전대협 가입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날의 비상학생총회는 전대협에 대한 제기입을 들려싸고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총학간부들의 「침묵하는 다수가 참여하는 투표」 주장과 이에 반발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찬·반투표를 통한 제기입여부 결정」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결국 어론에 밀린 총학간부들이 「전]현 사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찢고, 마이크등을 부수는 행패를 부린채 일방적으로 퇴장을 해 총대의원회 의장 권명환(목일학4)군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의 결과는 2명의 반대와 3천여명의 찬성으로 전대협 제가입을 가결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총학생회 간부도 모른 채 진행된 탈퇴선언

최근 일련의 전대협탈퇴의 배경은 지난해 총학생회(이하 총학)선거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난해 문익환목사의 방북뒤에 나타난 공안정국하에서 운동권(?)학생들에 대한 대량구속으로 인한 상대적 학생운동세력의 약화와 총학선거기간에 NL-PD논쟁을 둘러싸고 제도언론이 운동권세력의 이권다툼으로 총학생회 선거를 매도함으로써 일반학우들에게 기존 총학생회에 대한 불신의 늪을 깊게하여 단일화된 「비운동권」(이하 비권)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므로써 비권학생들의 대거당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비권 학교들의 전국적 조직결성 움직임에 기본적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권총학들의 전대협 탈퇴와 조직건설은 그 과정에서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교가 총총련에 가입한 것은 총학생회장만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총학생회장의 가입결정은 일반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이 총학 집행부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총총련 가입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즉각적인 반대 대자보 작업을 통해 우리의 의사를 밝혀 나갔습니다」라고 서원대 동아리 연합회 사회부장 차병천(중문과3)군은 음모적으로 진행된 총총련 결성의 배경을 말한다.

실제로 총총련이 기자회견을 가지던 청주대총학생회실 문앞은 각목을 든 해방대출신 학생들에 의해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었고, 그안에서 총총련 가입 5개대 총학생회장이 모인 가운데서 기자회견이 비밀리에 치뤄졌다 한다.

이와같이 결성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은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공통적 현상이다.

「전대협탈퇴는 총학생회장의 제량이며, 전대협은 가입할때도 의사수렴의 과정이 없었다는 핑계로 탈퇴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총학생회장은 전체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원이지 전대협에 자신만이 가입된 것이아니며, 21·22대 총학은 전대협가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협위)에서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쳐 「가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라는 영남대 문과대 학생회장 손정환(국문4)군의 말은 이를 쉽게 확인시켜 준다.

또한 이들의 일방적 전대협 탈퇴는 공통적으로 그들이 선거유세에서 내건 각 계구대협 강화라는 공약에도 크게 어긋나는 처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성과정의 비민주성들보다 더 큰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순수학생운동」을 내세우는 이들 우익단체들 결성의 배후에는 「우익단체」나 「정보기관」이 업존한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데 있다.

점보기관의 개입의혹은 짙어만가고……

「총총련의 제안자인 청주대와 서원대 총학생회장의 방문을 통해 총총련가입을 제안받고 있던 시기에 수차례에 걸쳐 안기부직원들의 전화를 통한 가입종용을 받았습니다」라는 한국 교원대 총학생회장 노용래(화학교육과3)군의 말은 이를 실증해주는 예이다.

또 건국대 충주 캠퍼스에서 벌어진 교지 「중원춘추」사태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중원춘추의 발간은 12월 15일에 있었고, 중원춘추에 대한 네사 또한 12월 중순부터 시작되었으나 실질적 구속과 수배형태의 탄압이 이루어진 것은 총총련결성이 있은 6일뒤인 지난 2월 6일 부터였다 즉, 대부분의 필자가 선진사상을 가진 학내성원들이었으므로 안기부는 총총련의 입지를 강화하는 「정치적입」으로써 시기를 늦추어 중원춘추사태를 벌인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11월 선거직후 비권당선학교에 배포된 「일반학생 총학생회장 당선자 중심의 지역및 전국연합건설 제안서」의 내용이 「현 학생운동의 실상분석」등을 자세히 수록한 7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권조직구성의 적절한 시기를 「조직의 완전한 구축도 방학시기에 이루어져야하며 발족은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개강후가 적절할 것」이라고 아주 상세히 기록한데다, 배포시기가 총학선거직후 자체조직정비가 되기도 전이라는 점을 미루어볼때 이 괴문서가 비권이 당선된 학교에서 나온것이라 보기가 어렵다. 더우기 이 문건의 명의와 출처가 분명치 않아 안기부의 공작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그리고 전대협탈퇴에 대한 학우들의 반대가 거세어지자 계명대같은 경우는 「전대협의 실체를 폭로한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2회에 걸쳐 배포했는데 그 내용이 기존 「민족·민주통일연구회」, 「민주청년 동지회」명의의 유인물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한데 「민족·민주 통일연구회」나 「민주청년 동지회」란 단체는 유령단체로 그 배후가 안기부라는 공공연한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안기부 배후설」은 의혹의 차원을 넘어 거의 사실로 규정되어 진다.

유령조직을 전대협 탈퇴조직으로 부각시키는 제도언론

한편, 이러한 정부기관의 개입여부와 더불어 각지역에서 일고있는 전대협 탈퇴 움직임이 제도언론에 과장보도되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언론조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영대신문사 취재부장 이승호(심리학3)군의 말은 이를 잘 나타낸다. 특히 3월9일 발족한 「강원지구 참민주대학생연합회」의 경우 관동대만이 총학차원에서 참가했을뿐 대부분 동아리차원등으로 구성됐으며, 더우기 선배의 권유로 모임의 성격조차 알지 못한채 참석한 신입생들도 다수를 차지했던 단체의 성격상 전혀 가능할 수도, 성립될 수도 없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대협 탈퇴선언—부제에서 「강원지역 6개대학 써클 전대협 탈퇴」(세계일보 3월 11일자, 중앙일보 3월 10일자)라고 보도하고 있다—으로 공공연히 보도한 것은 제도언론의 과장·왜곡보도를 넘어 계획된 사건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과장보도와는 달리 각 학교일반학생들의 총학의 일방적 처사에 대한 분노와 이에따른 총학 불신임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전대 충주캠퍼스학생들은 총학생회장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충총련가입의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각 과단위의 토론을 통해 반박대자보작업을 통해 그들의 명백한 충총련 가입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와같은 학생들의 거세반발은 지난 16일 「학생운동탄압분쇄및 민족 건대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시켰다. 5개단대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그리고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현재 「충총련가입뿐아니라 총학이 일련의 사업과정에서 보인 비민주적 작태들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를 물어 총학생회장단 탄핵을 이루어낼 계획에 있다.

▲전대협 탈퇴를 선언한 해당학교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사진은 영남대 총여학생회 명의의 총학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규탄대자보이다.

총학,독단 탈퇴- 학우대중,전대협 사수투쟁
학운·민민운 분열 노리는 정권 음모 개입

▲사진은 지난 3월22일 계명대에서 열린 비상학생회장 김말선(국문과4)양이 11일의 단식으로 부축을 받은 총여학생회장 장미다.

『언제라도 총학을 때리 빠 뿔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대는 현총학의 폭력성에 의해 학생들의 대중적 지지가 미약하다 한다. 즉, 충총련가입이 알려진 후 학생들은 과단위에서 이에대한 반박대자보를 붙여 학생들의 의사를 표출하려 했으나 이러한 대자보들은 5분도 채 못되어 총학생회측에 의해 뜯기워지기일 쑤이다. 또한 동아리연합회장에 대한 부총학생회장의 구타사건도 그 일예인데 이는 늘 10월 초순 열리는 축제를 총학은 임의로 4월 18일부터 20일에 걸쳐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4·19정신을 계승해 연장에대한 구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듯 충청지역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총학불신임투쟁으로 이어질 만큼의 의식공유들이 이루어져있지 않아 차기 총학선거를 겨냥하고 전대협 탈퇴에 대한 부당성등을 선전해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학생들 사이에서 전대협탈퇴 반대움직임은 매우 거세게 일고있다. 계명대의 경우 3월 6일 「전대협탈퇴」 선언이후 즉각적으로 인문대·가정대등 6개단대와 총여학생회, 동연등의 자치기구에서 반대대자보를 통한 입장을 표명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전대협탈퇴에 대한 공개사과와 전대협재가입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총여학생회장을 비롯한 7개 자치기구 회장들이 단식에 들입하였다. 그리고 지난 18일부터는 28명의 일반학생들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또한 비상학생공회소집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 16일자로 2천5백명의 서명이 담긴 연서가 접수되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개사과와 전대협 제가입을 결의하게 되었다.

영남대의 경우도 21일 현재, 학교앞 대자보판에는 「전대협 사수와 3당이합 분쇄를 위한 결사 단식4일째」라는 글씨가 선뜻 눈에 띄였다. 그곳에서는 사범대 학생회장 김창하(한교과4)군등 4개단대학생회장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1백만평에 이르는 캠퍼스 곳곳에는 단대및 자치기구의 명의로 전대협탈퇴에 대한 규탄대자보가 붙어 있어 영남대에서의 반대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언제라도 총학을 때리 빠 뿔 수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학우대중들의 힘으로 전대협을 사수할 겁니다」라는 총단대연합회의장 탁무훈(전기과4)군의 말처럼 영남대는 14개 단대와 각 자치지구가 결합되어 총학불신임을준비하고있다.

그러나 지금은 동록금문제, 구재단문제 등 학내의 산적한 문제해결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기에 총학불신임은 4·5월 민중운동의 고양기를 맞춰 이룰 것이라 한다.

한편 대구대도 영남대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학교이전등의 문제로 총학불신임을 진행시키지는 못하지만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고 이 문제가 구국운동에 사활적 요구가 달린 사안임을 선전대중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머지않아 총학생회가 격파될 것이라 믿습니다」라는 총대의원회의장 김정하군(사회학과4)의 말처럼 현재 11개단대 중 8개 단대와 총여학생회·총대의원회의 2개자치 기구등이 공동으로 활발한 선전전·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각 학교별 전대협탈퇴반대움직임과 발맞추어 전대협산하 각지구별대협 또한 우익세력연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전대협사수투쟁을 벌이고 있다.

충북대협의 경우 지난 2월 17일 기자회견을 가져 울상반기 사업중의 하나로 충총련의 본질을 명확히 밝혀내는 과정속에서 학생들의 전대협에대한 인식을 올바로 정립해내고 전대협을 학생대중들 스스로 지켜나가 충총련을 대중으로부터 고립화시켜 내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문제는 단편적으로 충총련이냐 전대협이냐의 선택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식으로 문제를 좁히는 것은 이번 일을 학생대 학생들의 대결로 몰고 가려는 정권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일겁니다. 따라서 이번사태는 각 학교별 학생들이 떨쳐 나섬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충북대협은 학우들의 전대협이해를 높이는 선전작업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충북대협 사무국장 김민수(충북대·사회학과4)군은 말한다.

구국의 강철 대오, 전대협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온 공안통치와 학생회장선거에서 나타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그리고 그에 기인한 비권후보가 대거 당선된 학교에서 집행부를 채 꾸리기도 전에 발전된 괴(傀)문건. 거기에다 과장·왜곡 보도하는 언론들의 행위를 단일선상에서 이해하기에는 쉽지 커림희하다.

이에대해 소위 「비운동권」을 자처하는 총학생회와 일부학생들의 「구국적 결단」 뒤에는 현정권의, 대학사회까지도 좌·우익 논리를 주입함으로써 학생운동을 사분오열시키려는 중·장기적 구도가 관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과연 비약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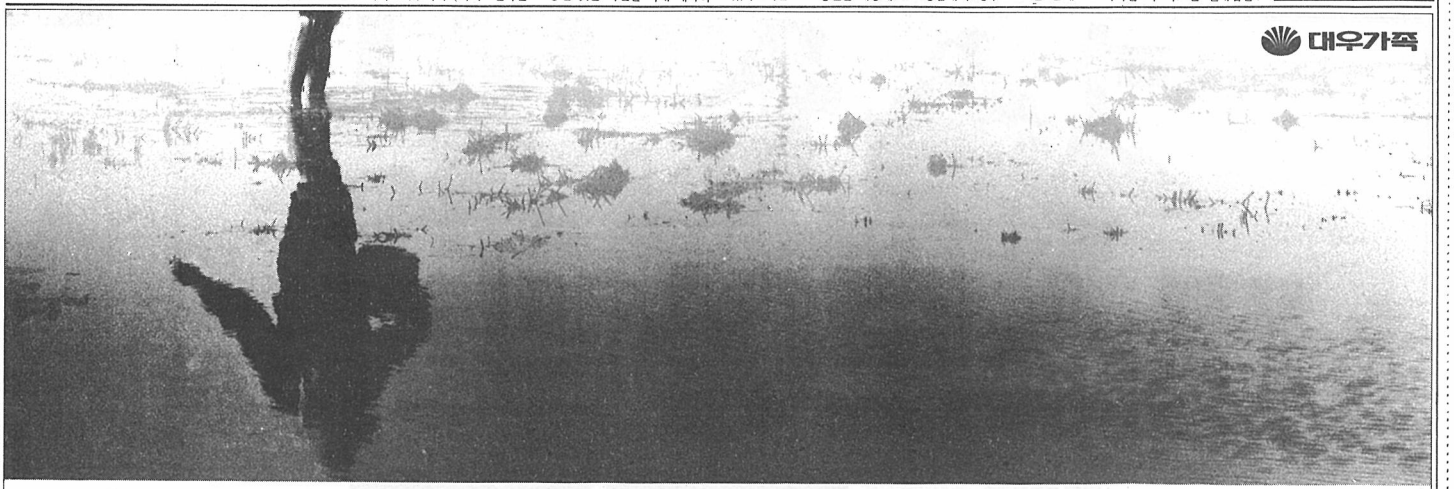
현정세는 반민족적 3당이합을 공고히하기 위하여 보수—혁신논리를 앞세워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이 날로 거세어지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낭만」 운운하며 전대협탈퇴를 표명하는 일부대학 총학생회와 일부학생들의 행위는 현정권에 편승하여 민족·민주운동발전에 주력군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학생운동을 말살시켜, 종국에는 범민주세력을 격파하려는 정권의 의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현하 진행되고 있는 각 해당대학 하부에서 부터 올라오는 전대협 사수의 의지는 이러한 탄압을 물리치고 「전국 백만학도의 구심」으로 「구국의 강철대오」로 전대협을 더욱 굳건히 세울 것이다.

외대, 이대, 한대
공동취재팀

대우가족



"오늘, 우리가 한알의 씨앗을 뿌리는 뜻은…"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겨우내 얼었던 냇물이 녹아 졸졸졸 흐르면,
우리들의 어머니는 냄새도 향긋한 냉이를 캤으십니다.
남쪽으로부터 꽃소식이 오고 봄빛이 완연해지면,
들녘의 논에 우리들의 부모는 또한 볍씨를 뿌립니다.

평범하지만 건강하고 진실하게
생산자(生産者)의 몫을 다하는 부모들의 삶—
빽빽한 책들 사이에서 공부를 하고,
지구촌을 무대로 밤과 낮을 바꿔가며 일하는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의 삶에 닿이있습니다.

산과 산, 논과 논, 밭과 밭, 골과 골…

이렇게 이땅의 곳곳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한알의 씨앗을 뿌리는 뜻은,
서로 아끼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봄에, 우리들의 땅에서 모듬살이를 하며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소중히 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빼어난 사람 못난 사람

민중의 가장 멋있는 사람 〈4〉 새뚝이 이야기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며 나라를 위해 남편을 전장에 보내는 아내의 사랑이 새뚝이라는데…

두부하는 날에 있게 되는 새뚝이

우리네 삶의 풍정에서는 어느 한 집에서 두부하는 날이면 그 마음이 온통 술렁대며 밤을 지샌다. 두부콩이 벌컬 끓는 가운데 구수한 콩비린내는 찬바람을 타고 주민 창자에 단침을 동하게 하련서 온마을에 퍼져 나가고, 또 글뚝의 내가 자욱이 내려 잘려 펑펑 쌓이는 눈발에 겹치는 모습은 마치 하늘과 땅이 혼인을 맺듯 우리네 시골고장에서만 볼 수 있는 정다운 모습이다.

이와같이 두부하는 집안에는 유난히 동네애들이 안방에 쪼르르 모여든다. 아랫목 웃목 할 것없이 방바닥이 뜨끈뜨끈하니까 눕기도 좋으려니와, 두부가 다되는 날이면 온동네 애들이 순두부를 한사발씩 얻어 먹을까 해서 구들장이 꺼지도록 뛰고 낄낄대며 밤이 깊어도 돌아갈 줄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인아주머니가 결대로 그들을 그냥 들려보내는 경우는 결코 없다.

이러하여 동네아이들은 두부하는 집에서 아주 까놓고 죽치고 앉았는 것이지만 사실 더욱 조바심인 것은 동네 머슴놈들이 모여 세기꼬고 짚세기를 삼는 들머슴 걱쇠네 집이다.

대개 새기꼬는 사랑방은 다른 이야기보다도 먹는 타령이 얼기고 설기게 된다. 반찬이라곤 얼은 무를 중덩중덩 썰어 넣은 된장찌개에다 깡조밥을 말아 훌훌 마셨을 뿐이므로 먹기가 무섭게 속이 꺼지고 헛헛증만 더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참 먹는 타령을 하는 것은 두부하는 집에서 이고 들릴 순두부가 왜 이리 늦는가 하는 조바심이 나타난 까닭이기도 하다.

혹 밖에서 인기척이 나도 그 사랑방 머슴놈들은 숨을 죽이는 것이요, 또 지나는 사람의 눈발는 소리가 뽀뜨득 뽀드득 나도 저것이 혹시 순이의 발자욱 소리가 아닐까 조바심하다가, 자정은 지나고 눈은 쌓이고 배창자는 주릴대로 주리고 관솔불(콜클불)타는 내는 방안을 매케하게 숨이 답답할 바로 그 경지에 참으로 눈발는 소리 뽀뜩 뽀뜩 들리면 그 머슴놈들은 일제히 숨을 죽인다.

왜? 지것은 분명 새뚝이 소리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관솔불에 매케한 방문이 벌컥 열리면 찬바람과 함께 들이닥치는 순두부 냄새, 그것을 이고 들어오는 이팔처녀 순이를 일러 순이라 하지 않고 새뚝이라 했다. 그러면 새뚝이란 누구인가.

이때의 새뚝이는 사람도 순두부도, 매케한 머슴놈의 방안 공기를 싹하니 갈아주는 샛바람도 어느 것이나 새뚝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다리던 세월의 소식이요, 그 소식을 통한 현실의 실현, 즉 당대의 영원한 연인이다. 물론 그것은 추상적 연인, 영원히 잡힐듯 말듯한 관념적 실체로서의 연인이 아니라 현실 해결로서의 영원한 연인, 즉 순이요. 순두부를 인 순이를 일러 새뚝이라 할 수 있다.

창문이 벌컬게 물들어올 때 이르는 새뚝이

옛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참말로 슬기와 지혜를 갖춘 우리네 아낙네들은 아무리 답답하고 외롭더라도 밭에서 돌아와 홀로 골아 떨어진 남편의 곤한 잠을 깨우는 막된 경우는 결코 범하지 않는 법이다.

더구나 밖에는 흰눈이 쌓여 창이 훤할 정도로 비친다. 이때 아무리 살아가는 일에 지쳤다고 하더라도 다정다감한 여인네라면 그 밤을 지친 잠으로 화사한 밤을 그렇게 소모적으로 써먹질 않는다. 바로 그런 정겨운 때일수록 홀로 이리저리 자리뒤척 하며 몸에서 새틈게 잉태되어 꿈틀대는 새생명의 장래를 꿈꿀 뿐 결코 곤히 떨어진 남편을 한갖되게 깨우질 않는다.

그러면 언제 깨우는가. 동창이 훤히 밝아와도 홀로 밖에 나아갈 뿐 지쳐 떨어진 남편을 결코 달구어 치지를 않는 것이 우리네 지혜로운 아낙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한밤이라도 모질게 남편을 일으켜 깨울 때가 있다. 어느땐가. 흰 눈빛도 없고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인데도 느닷없이 창문이 벌컬게 물들어 올 때다. 무엇 때문일까. 동네집에 불이 났는가, 아니다. 그러면 동네 개구장이들이 들볶놀이를 하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도깨비불인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불빛이란 말인가.

그것은 앞산에 봉화가 올랐기 때문이다. 봉화불이란 무엇인가. 급히 왜적이 쳐들어 왔을 때이거나, 아니면 일을 해도 해도 빼앗기기만 해 살 수가 없는 백성들이 참다 못해 일어날 때 일으키는 불길이다. 그 불길이 창에 어렸을 바로 그때 아내는 지쳐 떨어진 남편을 깨우는 것이다. 그래도 깨어날 줄을 모르고 파당파당 잠에 떨어져 있는 남편을 아내는 모질게 인정도 사정도 없이 그 공무니(엉덩이)를 냅다 차는 것이다.

『여보! 창에 새뚝이가 어렸어요』

이 한마디에 남편은 벌떡 일란했던 부부의 정을 단방에 깨뜨리는 주인공, 봉화불 그 불길이 올려붙은 아내, 아내의 사랑인 것이다.

장산곶마루의 북소리와 새뚝이

새뚝이 이야기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중허리 장산곶마루에 북소리가 나면 그곳 사람들은 이를 북소리라 하지를 않고 마침내 새뚝이가 됐다고 했다. 그곳 사람들은 장산곶 사람들이야말로 어떠한 곤경속에 처해 있더라도 언젠가는 새뚝이가 나타나 북을 때릴 것이오, 그렇게 되면 그곳 사람들은 또다시 쟁기를 들고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변형된 가락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의 폐하, 폐허의 침묵을 한소리로 깨고 폐허를 강요하는 것들에 대하여, 아니 죽음을 강요하는 것들에 대하여 가차없는 대결을 선포하며, 새로운 세상의 창조 탄생을 주도하는 사람의 한소리, 이것이 장산곶마루에 북을 들쳐메고 나타난 새뚝이인 것이다.

그러면 새뚝이를 정리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새뚝이란 시들해져가는 사랑의 질곡을 깨는 현상타파의 개념, 바로 새로 태어남의 미적 계기이다.

가령 적과 적 사이에 싸우던 전선이 서로 지쳐버려 정의의 전선도 불의의 전선도 서로 밀고 당길 능력도 기력도 없어져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무엇을 믿는가.

언젠가는 장산곶마루에 누가 치는지 모를 북소리가 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장산곶은 다시 일어난다는 전설이다. 『장산곶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넘만나 보겠네』하는 소리는 바로 허무함이 들이닥치고 싸움에 이기면 곧 들아갈거라던 그리운 고향, 그 고향에서 철없는 젖먹이를 재워놓고 뜬눈으로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 안길 꿈은 영 사라져 간다.

이때 느닷없이 달빛도 차진 전선의 적막을 깨고 어디서 한 소리의 구슬픈 퉁소소리가 나는가 하더니 갑자기 북이 울린다.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는 가슴을 때리는 소리다. 슬픈 죽음의 비극이 노여운 비감, 슬픔을 넘는 비장성으로 승화되는 계기이다.

그리하여 죽음을 딛고 일어선 전사들이 필사적으로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한소리, 어찌보면 아무것도 아닌듯한 구슬픈 퉁소소리, 아니 슬픔을 넘어서는 비장한 그 한 소리를 일러 새뚝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뚝이란 무엇일까. 주어진 판일랑은 깨고 새로운 판을 일구는 한소리, 찢어지는 소리, 혁명의 한소리이다.

그렇다면 새뚝이야말로 이세상에서 가장 매력있는 멋쟁이 영원한 연인이다. 모두가 지쳤을 때, 모두가 축 처졌을 때 그 캄캄한 어두움을 단 한점 불빛으로 무너뜨리는 샛별과 같은 이, 바로 그런 것이 새뚝이니 이에서 더한 매력가가 이세상 또 어디에 있는가. 우리 겨레 뿐이라는 이야기다.

모두가 지쳤을 때 캄캄한 어둠을 사르는 샛별 같은 이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

〈그림:화가 강요배〉

〈정리:통일문제연구소편집부〉

우리말의 쓰임새 (180) 어색한 구절

〈서독산 잔디는 기온이 추워도 파랗습니다—TV대화 중에서〉 이 문장중 「기온이 추워도」에서 어색함을 느낀다. 「기온이 낮다」거나 「날씨가 춥다」라고 하면 어색하지 않은 바른 표현이 된다. 따라서 「기온이 추워도」는 「기온이 낮아 날씨가 추워도」의 일부분이 생략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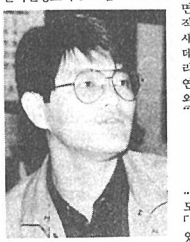
〈알림〉 이번주를 끝으로 필자가 남성우(한교과) 교수님에서 새로운 필진으로 바뀝니다.

◇「미네르바문단」을 신설한 외대교지편집장 박정호군을 만나

미네르바에 「글꽃」이 피는날

인터뷰

『기존의 교지에는 「미네르바의 새벽」이라해서 외대학우들만이 참여하는 문단과 전국적 범위의 「외문문화상」이 있었습니다. 한데, 용모는 물론이고 당선된 작품들이 대체로 타대학작품들로 채워져 외대의 문학현실과 외대인의 작품을 담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본교생의 대다수가 어학전공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더더욱 사라져가는 외대의 문학풍토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회에 「미네르바문단」을 신설·공모했습니다』 90년도부터 외대교지인 「외대」지의 연2회 발간과 더불어 외대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상인 「미네르바문단」을 신설하게 된 「외대」지 편집장 박정호



△「외대」지 편집장 박 정 호 (서양·노어3)

「미네르바문단」을 계기로 이러한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 「외대인의 글쓰기운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정호군은 『외대내의 문학활동은 동아리나 과 문학반경도의 소모임으로만 한정했던 부부의 정을 단방에 깨뜨리는 주인공, 봉화불 그 불길이 올려붙은 아내, 아내의 사랑인 것이다.

"어학전공의 특수성속에 사라져가는 문화풍토 활성화를 기하고자합니다"

(서양·노어3)군은 이번 계획의 의의를 이렇게 밝히며, 그간 대학내 언론지가 학내의 창작 의욕들을 충분히 고양·담보해 내게 못했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무엇보다 외대생이 글쓰기를 외면한다는 최근 주변의 지적을 살펴볼때 그 원인으로 우선, 그간 외대내 문학작품 발표공간이 그리 넓지 못했다는 데서 첫번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다면 문학활동에 참여하는 대중범위가 특수 동아리나 과문학회에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된 「미네르바문단」이 1만5천여 외대학우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들 모두에게 읽혀지는 참다운 문학발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끝으로, 박정호군은 『이번엔 용모마감일을 사정에 의해 5일 정도 연장하려 하는데, 그래도 시일이 촉박해서 용모를 못하는 경우엔 다음 학기에 꼭 도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자신들의 진솔한 글을 담아 「미네르바문단」으로 오십시오』라고 독자들에게 당부의 말역시 빼놓지 않았다.

〈신나영기자〉

문화 개상도

지난 24일(토)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주최로 노래공연 「자,/ 우리 손을 잡자」가 1만여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전체 3부로 구성된 이날 공연은 별민중, 반민주적 3당 야합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민중운동탄압에 대한 제 민주세력의 총단결의지를 드높인다는 취지로 열렸으며 「노래를 찾는 사람들」 「예울림」등 9개 노래모임단체가 참석하였다.

특히 공연의 마지막에서 출연진과 관람객이 함께 부른 전체합창은 차갑게 불어대는 바람속에서도 자리에 모인 모든 이에게 뜨거운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글·사진:주재영 기자〉

당신은 黑입니까, 白입니까?

우리 주변 어디서나 흑백논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석에서부터 시장바닥의 대포집까지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분명히 하라는 끊임없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당신도 어쩌면 흑백논리의 뿌리깊은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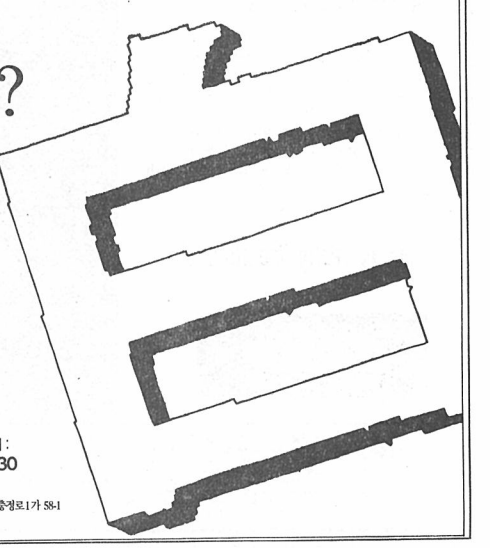
한 예로, 국내최대인 70,000명 이상의 정기독자를 가진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을 두고 화끈하지 못하다고, 이 색깔도 저 색깔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시사저널이 최대의 정기독자수를 갖고 국내의 어디서나 권위를 인정받는 이유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사저널은 정치권력이나 재벌, 종교, 심지어는 기존언론의 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언론입니다. 흑백논리에 익숙해온 우리에게 새롭고 객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사주간지 입니다.

시사저널 WEEKLY NEWSMAGAZINE

●정기구독신청·문의 : (02) 733-3330

국제언론문화사, (우) 100-151, 서울 중구 충정로1가 58-1



◇중흥외대 학원자주화, 그 올바른 방도를 제시한다

—〈4〉타대학 등투 상황및 향후 등투 방향 모색

끝없는 진통 이제는 종지부를

보되기획

사학재정은 정부·재단·학생 공동부담해야
국고보조금확대를 위한 대책위 구성 필요

Ⅰ. 잊는말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한 진통을 겪어왔던 등록금문제가, 지난 3월24일(토) 6.63%인상으로 타결되었다.

「학원민주화를 위한 합의사항」으로 「학교는 등록금 이외의 재원인 기부금, 국고보조금, 재단전입금등을 계속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동시에 총예산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낮추어 나가기로 한다」「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수, 학생 정례회의는 이의 증감 및 집행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등 23개 조항의 합의문을 남겼다.

2회에 걸쳐 개최했던 등록금 자율화조치 배경 및 사학재단의 현실과 본교 등록금문제의 협상 창구 「등록금조정위원회」의 진단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마지막으로 타대학 등록금조정 협상실태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등록금투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등록금문제의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Ⅱ. 타대학 등록금책정 상황

국립대학의 경우, 일찌기 수업료 동결과 기성회비 소폭인상으로 등록금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부족과 사학재단의 열악으로 전국 사립대학이 학교측의 부리한 인상을 요구, 난항끝에 3월14일(수)까지 48개 사립대가 10%이상 인상, 27개 대학이 5~10%인상에 합의를 보았고, 아직도 일부 대학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 시내 일부 대학의 등록금책정 상황을 보면, 서강대는 지난해 합의한대로 「등록금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11.5%인상에 합의를 보았다. 학교, 재단, 직원노조, 대학원생, 학생대표로 구성된 조절위원회는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학교측 27.5%, 학생측 6%인상 주장에서 각각 13.8%, 10.3%로 양보한후 11.5%인상에 최종 합의되었다. 또한 조절위원회를 「재정복지위원회」로 상설화시켜 학교 예·결산등에 참여하고 국가지원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러나 7억원을 순수 재투자 할 것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학교 본관건물을 점거, 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

한양대의 경우는 학교측이 인문계 10.7%, 공대 20.2%로 일방적으로 인상한데 대해 학생들은 5.18%인상을 요구하며, 등록연기 및 서명운동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학교측은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37%정도의 학생들에 대해 수강신청서를 발부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3월27일(화)쯤 미등록한 학생들 각가정에 제적통지서를 발부키로 하고, 문교부에 제적처리신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과 심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 동국대, 고려대, 중앙대, 세종대등도 아직 등록금조정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Ⅲ. 향후 등투의 활로 모색

이처럼 사립대학이 해마다 등록금문제로 수난을 겪어야만 하는 이유를 분석, 이에대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8년까지 매년 5% 안팎의 수준이던 등록금 인상률이 89년 문교부의 「등록금자율화조치」이후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물가인상률을 근거로 두자리수 이상으로 폭등하였다.

문교부가 말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칙을 무시한 비논리적인 원칙이다.

실제로,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력재원의 양성이 결국 사회를 환원된다고 할 때, 교육환경조성에 국가가 적절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교육비는 정부, 사학재단·학생 3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이번 90년도 정부의 사학재정 지원금 3백억원은 1백여 사립대학에 비례 분배하면 1~3억원 정도로 실제적인 도움이 안되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0%를 상회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학등록금자율화조치는 무능력재단이 비민주적으로 운영, 폐쇄된 사학의 재정난과 국가의 국고지원 책임방기에 따른 교육재정난을 학부모의 가계부담으로 모두 전가시키는 부책임한 조치이다.

학원자주화투쟁중 가장 핵심 고리인 등록금문제가 본교만의 특수한 상황에 매몰되어 전국 사립대학의 연대없이 개별적으로 또한, 그속에서 각 학원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들이 제각기 단절된 조직체계 상태에서 고립분산적으로 등록금협상을 계속 해나간다면, 앞으로도 등록금문제는 해가 거듭되어도 해결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현재 전체 학원구성원들이 이러한 난관을 뚫고 나갈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분산적인 학원자치행정체계를 하나로 집중시키고 고립, 분산적인 전국사립대학의 역량을 결집해서 연대공동투쟁을 벌여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학재정은 정부·재단·학생 3자 공동부담이 원칙임을 인식하고, 그간의 「재단과의 협상」을 이제는 대문교부와의 협상을 통해 「국고보조금 확대」로 전환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류영조 기자〉

엄중한 감시

○…쌍룡마냥 단단하기만 하던 박(?)을, 흙산들 돌돌 뭉쳐 틉으로 씰었다니 과연 땀의 댓가가 있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흙산들의 가슴을 조여 왔던 등록금문제가 흙산들의 뜨거운 관심과 확고한 단결력으로 마침내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등록금투쟁의 승리를 이룬 것이 그것.

단식까지 해가며 3개월이 넘도록 힘들게 싸워온 흙산대표와 흙산들의 대동단결심에 크르니클자 갈채를 보내며, 이제 우리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두눈 부릅뜨고 엄중하게 감시하길 당부하오.

○…『아니보다 더 중요한건 이세상에 없을거야(금딱지 빼고), 45년 친구보다 더 좋은건 없을거야(쌍금뺏지 제외하고)』

분위기 파악못하고 뛰어든 선거경쟁에서 「파란 기와집」에서 내보내는 입김에 대구로 내려온 서구 갑 선거구 후보자 정×××가 계속되는 민자의 군살빼기작전에 백기들고 후보사퇴를 표명했다는데.

이제는 45년 우정도 싹 외면하는 노가리 밀에서 벗어나, 가시발길을 걷는 사회의 마음으로 살아가시암.

○…『구국의 대결단』이후 정작 달라진건 민주적 정원을 외면하는 「사립학교 자동조정법」 만들어내는 수작뿐이라고.

임시국회 마지막날 은근슬쩍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겉으로는 사학의 자율성을 무진장 보장하는 듯하지만, 그 시커먼 속은 양심있는 교수 생존권은 계단에, 제단은 자기네들 손에다 쥐고 있으려는 것.

통과만 되면 시행도 당연하다 여기시나 본데, 등록금투쟁으로 뚫뚫뭉쳐진 백만학도 앞에선 부질없는 수작임을 자인하시암.

○…문:저는 모과에 재학하고 있는 새내기인데 우리과 모교수님의 장의실에는 죽어도 들어가기 싫어서 고민입니다. 답:쌔그 교수님은 수업때 고개만 올적여도 「×만도 못한놈」등 쌍시옷 발음을 남발, 행여 이러다 정말 「개」보다 못한 흙산이 될까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그동안 몇몇 교수님들을 「인간화(?)」 시키지 못한 흙산에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젠 걱정마십시오. 「참교육 1세대」들이 참교육 바람을 불러 일으키면 그 교수님도 바람따라 갈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도 보따리까지 잘 챙겨줘야 한다는데, 요즘 노가리는 유명무실한 공수표정책을 남발 민초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있어.

「토지공개념」이니 「금융실명제」니 시행한답시고 땅값, 집값, 공공요금 폭등시켜 놓을뿐더러, 배부른 계발기업들의 눈쌀 찌푸리는 꼴에 놀라 처음부터 황당한 계획이었다며 「유보」를 결정한 것이 단초.

가진것 없는 민초들 속여, 몇푼 없는 돈 탕진을 해도 유분수지. 길거리를 헤매는 민초들 이판사판으로 결국 달려들 곳은 어르신네들 목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시(事).

황당한 유보

◇심층기획 —— 박필수 전임 총장 사업평가

산적한 난제들만 남겨놓고…

88년 1월에 본교 3대 총장으로 취임했던 박필수총장이 지난 3월17일자로 상공부장관자리에 임각하게 됨에 따라 제임기간 만 2년만에 전체 임기내년의 총장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에따라 「중흥외대」건설을 목표로 시작되었던 박필수 전임총장의 임기중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가 작업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학원자주화시설에 대한 약속이행과 이후 진정한 「중흥외대」건설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먼저 총장직에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박필수 전임총장의 사업이념을 살펴보면, 2년전 취임식사를 통해 「교육적 사명을 등에지고 책임과 자율정신에 투철한 민주적사고와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밝혔듯이, 임기중 정책방안과 운영에 있어 민주적원칙 관철과 그에 따른 책임성있는 이행을 최우선으로 표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따라 지난 2년간 학원자주화사업을 통해 학생측이 요구했던 각종 사안들에 있어서 외형적이나마 많은 부분들이 학원구성원들간의 합의 속에서 시도되었고, 이를 통해 어느정도 협의·타결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전부터 지연되어 오던 학내 시설개선, 공간재배치등의 숙원사업들도 일정정도 임기중에 실행에 옮겨진것 역시 사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제임기간중 실행된 사업들을 살펴본다면 무엇보다도 지난 89년 3월에 발표된 「외대 장·단기 발전계획안」확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80년초, 2천년초까지 용인캠퍼스로의 이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후 사실상, 이를 뒷받침할 재단의 능력부족과 일관성없는 무책임한 분교정책으로 인해, 전혀 실현불가능한 「동유도원도」란 비판을 받았던 마스터플랜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한 「장·단기 발전계획안」은 90년초 현재 용인캠퍼스 동·서양학대로의 학생개편, 동구어과 중과및 인원증원, 그리고 서울캠퍼스 제배치, 신축중인 용인도서관등 가시적 결과물들을 보였으나 그 실행결과에 있어 나타난 문제라 할 노천극장 부실공사와 용인 동·서양학대 개편에 따른 교과과정개편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덧붙여 대부분의 학원민주화 합의사안들이, 가령 지난해 학원자주화를 위한 학교측과의 합의사항들이 「추진한다」 「검토한다」식의 문구로 작성, 결국 이번 새학기 심각한 문제로 다시 대두되었던 용인 교통문제처럼,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일시적 무마책의 1회적 사업 추진으로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발전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지 못했던 오류점을 들수 있다.

작년 3월초에 진통을 겪었던 노조파업의 경우, 직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직원인사위원회 구성」 「단일호봉제」 「임금인상」 요구에 대화와 협상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16일간이라는 장기파업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학교운영 제정의 부족을 이유삼아 고시절 폐쇄결정은 학원 내부적으로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게 되는 부시안일한 조치였다. 결국 이에 반발한 학생들에 의해 「고시안 발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공간확장및 운영비 확대등으로 폐쇄 결정을 철회, 학생들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학교행정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필수 전 총장의 임기중 잦은 외국대학 방문 사례는, 물론 본교의 특성을 살린 외국대학과의 교류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으나 주목할 만큼 내실있는 성과물들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 하겠다.

학교행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비효율적인 인력관리및 행정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학원구성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거의 갖지 않아 개개구성원들에게 권위적인 총장님으로 인식되어 졌으며, 교수 학생 직원들의 하부상달식 의사 수렴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학교 이미지 향상면에 있어서는 작년 3월 총장직속산하로 홍보실을 격상, 본교의 대외 홍보 활성화를 꾀했다.

이상 개괄적으로 살펴본대로, 박필수 전총장이 임기중 보였던 외대중흥을 위한 실질적 발전사업부재나, 현실에 급급한 1회성 사업자장, 등록금협상시에서 보였던 것처럼 책임회피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노정된 문제라면, 임기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실상 단기적 약속사항의 책임있는 이행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이다.

하지만 이제 박필수 전 총장이 2년만에 임기를 그만둔 상태에서 학원의 산적한 난제들

능동적 사업추진 부족으로 성과물 미흡
중흥외대를 위한 장단기발전 계획 수립

서양학대 개편에 따른 교과과정개편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필수 전 총장의 임기중 잦은 외국대학 방문 사례는, 물론 본교의 특성을 살린 외국대학과의 교류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으나 주목할 만큼 내실있는 성과물들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 하겠다.

학교행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비효율적인 인력관리및 행정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학원구성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거의 갖지 않아 개개구성원들에게 권위적인 총장님으로 인식되어 졌으며, 교수 학생 직원들의 하부상달식 의사 수렴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학교 이미지 향상면에 있어서는 작년 3월 총장직속산하로 홍보실을 격상, 본교의 대외 홍보 활성화를 꾀했다.

이상 개괄적으로 살펴본대로, 박필수 전총장이 임기중 보였던 외대중흥을 위한 실질적 발전사업부재나, 현실에 급급한 1회성 사업자장, 등록금협상시에서 보였던 것처럼 책임회피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노정된 문제라면, 임기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실상 단기적 약속사항의 책임있는 이행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이다.

하지만 이제 박필수 전 총장이 2년만에 임기를 그만둔 상태에서 학원의 산적한 난제들을 겸겸, 본교의 대외 홍보 활성화를 꾀했다.

이상 개괄적으로 살펴본대로, 박필수 전총장이 임기중 보였던 외대중흥을 위한 실질적 발전사업부재나, 현실에 급급한 1회성 사업자장, 등록금협상시에서 보였던 것처럼 책임회피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노정된 문제라면, 임기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실상 단기적 약속사항의 책임있는 이행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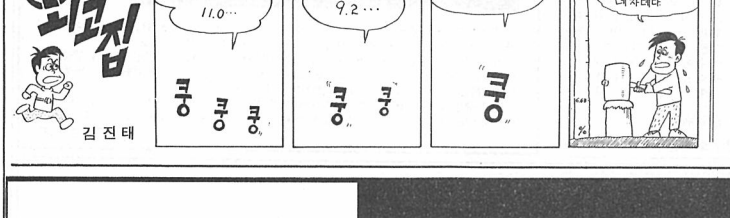
하지만 이제 박필수 전 총장이 2년만에 임기를 그만둔 상태에서 학원의 산적한 난제들을 겸겸이 받아들여 임기도중 사임은 또한 「중흥외대」를 향한 각종 사안에 대한 무책임한 전가는 결국, 또다시 외대발전에 중대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88년 박필수 총장이 선임될 당시 학내 여론이 박총장이 본교 출신 총장이라, 이후 외대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박필수 전 총장의 2년 임기를 평가해 볼때 더이상 학원의 총체적 책임자가 사업에 방관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학교운영을 해 나간다면 2천년의 마스터플랜도 내실을 기하지 못할 것이다.

〈김창섭 기자〉

외교집 〈52〉



김 진 태

"십년을 품어온
영어정복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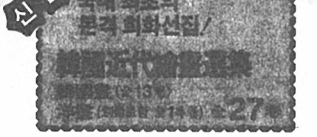
10년 영어공부에 정작 쉬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우리 외국어교육의 현실, 머릿속에 영어 단어는 풍부하게 담겨 있는데 정작 말로는 되어나오지 않아 늘 답답하고, 10년 공부했다는 사실이 무색해 집니다.
이제 Live Action English가 무색해진 당신의 문어체(文語體) 영어를 생생한 실용영어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Live Action English로 100일 정성을 들여보십시오.
지난 10여년의 묵은 영어 실력까지 모두 되살아납니다.
"This is really Something!"

금성출판가족
KAMP
KUMSUNG ART MEDIA PUBLISHING

"This is really Something!"
"이건 정말 굉장하군요!"

기획 한국방송사업단 / 금성출판사

KBS TV
생활영어회화
Live
Action
English
감사:강영은(미국 Ohio 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
(동덕여대 영문학과 교수)
비디오테이프 10개/텍스트 5권



금성출판사 전국 주문처

■서울중앙판매(주)[02] 543-7575
성동282-8200/잠실543-9405/공릉477-5024/영등540-1836
광실418-1828/월릉212-8111/동대문435-8474/상계815-8112
도봉848-1108/노원862-7831/중계235-4718/중곡882-1177
구로833-8681/김서884-2545/등촌815-5238/영등포834-3886
개봉884-8924/미포332-2161/서대문312-2788/은평735-6363
홍산795-5623/한강668-4811/고덕478-4883/의정부(031)72-2483
성남(0342)751-6333/동성남43-8988/구리(0346)566-8588
문산(0348)841-2584/동두천(0351)25-2528/하남(0347)781-2368
원주(0371)42-2317/김종(0381)12-2458/춘천(0361)54-2488
속초(0392)33-2356/제천(0443)3-5383/태백(0395)52-2848
영월(0373)2-2449/동해(0334)32-4825
■경기판매(주)[0343] 43-7193
인천(032)81-8727/동인천82-8032/상인천762-2878/부천62-6818
수원(0331)6-4236/동수원5-7588/안양(0343)49-2814
송탄031)48-2789/평택(0333)2-4188/안월(0345)82-7268
군포(0343)51-3287/오산(0338)8-8844/용인(0335)35-5842
김포(0341)83-8288/발안(0339)52-5792/평월(02)615-1747
■충청판매(주)[042] 252-3334
대전256-8483/중대(0256-1838/서대전253-1861
천안(0417)82-3882/청주(0431)56-4488/서월주(0431)3-8315
충주(0441)44-8424/서산(0455)2-2123/대전(0452)2-7894
논산(0461)32-1978/홍성(0451)32-3548
■호남판매(주)[062] 222-9991
광주222-1834/남광주56-2617/서광주224-4082
여수(0662)62-6367/전주(0652)84-6378/북전주75-3125
목포(0631)2-0824/군산(0654)5-3282/해남(0634)32-2237
순천(0651)44-2487/정주(0652)2-3824/이리(0653)52-8118
남원(0671)32-7741/나주(0613)32-8776/진안(0655)2-2877
■경남판매(주)[051] 646-0385
부산646-9411/북부산888-4187/동부산42-8248/서부산603-5982
동부산866-3973/남부산27-7213/신부산643-6178
울산(0522)2-1818/동울산76-1182/남울산76-1180
마산(0551)55-8051/동마산55-2221/진주(0591)55-7637
충무(0557)2-3559/김해(0525)2-2478진해(0553)2-3081
창원(0551)83-2282/거제(0558)687-2518/거창(0598)2-8548
사천(051)247-2414/구포336-1881/양산(0523)66-8455
■경북판매(주)[053] 625-0186
대구625-0183/동대구424-4831/서대구54-8418/북대구424-8488
남대구425-5223/중대구423-5282/경산(053)83-8125
경주(0561)3-8033/안동(0317)32-8428/포항(0562)75-1113
동포항75-8882/구미(0546)52-2881/김천(0547)32-2344
김천(0547)32-1817/영천(0563)33-4828/영주(0572)2-2472
■제주 (064)51-2243
■West Germany(서독, 프랑크푸르트)49-69-2525-49

용인11대총학출범

서울 총학및 각단대 금주내 발대

▲지난 3월20일(화) 용인캠퍼스 명수당 앞에서 임수경대표의 어머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학생회 출범식이 열렸다.

양캠퍼스 총학생회 출범식및 총여학생회·각단대학생회·동아리연합회출범식이 이번주까지 모두 치뤄진다.

용인캠퍼스의 경우 「제11대 총학생회 출범식및 정기학생총회」가 지난 3월 20일(화) 명수당앞 야외무대에서 박희태 부총장과 이영록총학생회장, 조용미 여총학생회장, 각단대 학생회장등 학생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로 열린 출범식에서 총학생회장 이영록(동학·아프리카어4)군은 출범사를 통해 『대학발전은 학생, 교수, 직원 3주체의 연대와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며 『풍일왕산 5천여학우들의 단결된 힘으로 학원자주를 이루자』고 말했다.

박희태 용인캠퍼스 부총장은 격려사를 발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위해 학장생활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니 각자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였으며 초청인사로 나온 임수경어머니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분들의 격려와 아낌없분에 수경이는 건강하게 잘있다』며 『자주·민주·통일의 열망이 변함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부로 열린 정기총회는 학생들이 대부분 자리를 빠져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된채 진행되었다. 총학생회 사업계획과 각부서 소개및 행사계획 발표가 진행된 2부에서 등록금문제 경과보고후 총학생회장의 「학원자주를 위한 단식농성돌입」 결의발표가 있었다.

또한 「제2대 총여학생회 해오름맞이 새내기 여학우맞이 큰잔치」가 지난 3월 26일(월) 오후2시 총여학생회장, 총학생회장및 용성여대협의장단 각단대, 동아리회장과학생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명수당앞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서 제2대 총여학생회장 조용미(서양·노어4)양은 출범사를 통해 『이땅의 참해방과 참평등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여성이되자』며 『자주여성 황산 2천5백여성의 힘찬걸음으로 총여학생회의 출범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양학대와 사회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는 각각 3월 22일(목), 23일(금) 출범식을 갖고 현안 등록금문제와 교통문제등에 대한 대책등을 발표하였으며 서대 13개 과회장들은 총학생회장과 함께 단식농성에 들입할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제7대 민중승리 동아리 연합회 전군식및 동아리신입생 공개모집 한마당」이 지난 3월 22일(목) 오후 4시 노천극장서 3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오는 3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열릴 「동아리대표자수련회」등 사업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출범식 일정은 다음과 같다.

▲27일(화): 상경대(오후3시 노천극장) ▲28일(수): 서양어대(오후3시 대강당) 정과대(오후4시 대학원 311호) 사범대(오후 3시 대학원 411호) ▲29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오후3시 노천극장, 출범식후 정기학생총회 개최) ▲30일: 법과대(오후1시 노천극장 출범식후 연합엠티(M·T)출발)

「용성총련」 민자당규탄집회열어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이하 용성총련)」은 지난 3월 21일(수) 오후 성남 상대원시장앞에서 「민자당 해체와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용성 4만학우 결의대회」를 본교생프할 3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가운데 개최하였다.

성남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속에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본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영록(동학·아프리카어4)군은 『친미 반민주 대야합인 민자당독재를 모든 민주세력이 결집하여 분쇄하자』고 말했다.

이후 학생들은 상대원시장에서 「성남 서 고등학교」까지 「반민주야합 민자당독재분쇄」와 「빌스피리트 결사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자연대 학생회 가요제 개최

자연과학대 학생회는 신입생환영회의 일환으로 「제2회 자연과학대 학장배 가요제」를 지난 3월21일(수) 용인캠퍼스 개강당에서 4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1부 신입생 환영식후 열린 이날 가요제 결과 합창부문에 「그날이 오면」을 부른 수학과, 독·중창 부문에 「유리창엔 비」를 부른 오세희(환경1)양이 각각 1등을 차지하였다.

서울 영어과 초청 강연 개최

서양어대 영어과는 영국 「워릭(Warick)대학」의 「텔마 핸더슨(Thelma Handerson)」교수를 초청하여 「90년대의 교육방법론」이란 제목으로 지난 3월 22일(목) 오후 11시, 시청각교육원 210호에서 공개강의를 실시하였다.

대학원 경정과 경 정 대 학 원

교수통합논의

"학부독립성 결여조치" 학생 반대

주임교수 임용문제로 난항을 거듭해오던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과 관리문제가 경정과교수를 경영학과교수로 통합경영학과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반대학원 경정과와 학부 경정과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차별성을 이유로 경영정보대학원의 경인근교수가 일반대학원 경정과 주임교수로 발령된 것과 석·박사과정이나 교과과정을 경영정보대학원과 공동관리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따라서 지난 3월22일(목) 교수간에 논의된 교수통합은 양대학원교수를 경영학과로 포함시켜 통합된 「경영학과」에서 일반·특수대학원과 학부 경영정보학과까지 관리, 양대학원의 차별성을 온데,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이에대해 일반대학원생 이종민(석사과정1학기)군은 『일반대학원은 학부와 연결되어 공부해가는 과정』이라며 『이런식의 논의는 학부 경영정보학과에 실질적인 교수가 없어져 학부의 독립성이 없어질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영학과로의 통합논의는 경영정보학과의 신설목적인 「타학문으로부터 독립된 학문연구에 어긋나며 경영정보학의 고유영역이 경영학과의 한부문으로 전락될 위험을 안게되었다. 또 이번 논리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과와 경영정보대학원간의 교과과정차이 등의 문제를 풀지 않은채 일단 해결하고 보자는 식의 학교측의 근시안적인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용인 국토순례반 활동자료 전시회열어

용인캠퍼스 봉사분과 동아리 국토순례반은 지난 3월26일(월)부터 시작하여 오는 3월30일(금)까지 학생회관로비에서 활동자료전시회를 개최한다.

제4회로서 정기적인 이번 전시회에는 국토순례를 통해 발굴해낸 학술자료와 순례에 필요한 자전거등의 장비, 그리고 국토순례기록및 메모등과 사진이 전시되게된다.

서총련, 대의원 대회 31일 고려대서 열려

「제3기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제5차 정기전체 대의원대회」가 오는 3월31일(토)오전10시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학우에게는 지혜를/ 학우와 함께 투쟁을/ 학우에게 승리를 」이라는 구호아래 열리는 이번 대의원대회의 안건은 ▲89년 조직사업 평가와 90년 조직사업전망, ▲89년 투쟁사업평가와 90년 투쟁사업전망 ▲규약두정(중앙조직 재편에 대하여) ▲의장단선출, ▲모범사례 발표 ▲총노선결의문, 단결투쟁선언문, 학원자주화선언문 채택등이다.

서총련은 대의원대회의 의의에 대해 『지난시기 서총련이 보여주었던 오류와 한계를 혁신의 견침에서 극복, 전총련을 향하는 제4기 전대협의 모범으로써 그리고 40만 학우들의 사상적, 정치적 진출을 도모하는 서학련전설의 주체로서 서총련조직, 사업을 확장시키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총련」대의원 총회 열려

의장에 경희대 송규봉군 선출

지난 3월 24일(토)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열린 「제3기 동부지구 총학생회 연합(이하 동총련) 전체대표의원 총회」에서 경희대 총학생회장 송규봉(국문4)군이 제3기 동총련의장에 선출되었다.

동총련 소속 10개대학 98명의 대의원중 68명이 참가, ▲89년 지구사업평가와 90년 전망 ▲동총련 89년 투쟁사업 평가와 총 노선토론 ▲임중석의장 구출투쟁 결의문 채택 등의 안건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제3기 동총련의장으로 선출된 송규봉군은 『공평위한 민주대연합 전선을 구축, 친미보수세력의 파쇼야합과 장기집권음모를 적극적으로 폭로, 분쇄하자』고 이후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한편 부의장에는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이제진(도시계획4)군이 선출되었다.

용인, 에스페란토 「4개국 세미나」개최

용인캠퍼스 학술분과동아리 「에스페란토」는 지난 3월20일(화) 교양학관 401호에서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3개국 대학생들이 참여한가운데 본교를 포함 「4개국 친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에스페란토어를 통한 세계여행」 「대학생활」 「에스페란토어」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네덜란드의 힐코써는 『에스페란토어는 언어능력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며 『에스페란토어를 널리보급 확장시켜 세계적인 공용어로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윤원철 전 총학회장 5년구형

특수공무집행방해및 시위주도 혐의

지난 89년 10월20일(금) 성남시 성남극장앞에서 용인경찰서 대공과 형사에게 불법연행,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되었던 전(前)총학생회장 윤원철(사회·경제4)군이 지난 3월20일(화)수원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시위주도혐의로 구형5년을 받았다.

또한 지난 89년 8월21일(월) 개강직후 뒤를 미행하던 형사에의해 연행,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됐던 전 사회대 학생회장이며 징계준비위원장이었던 김근태(무역4)군은 지난 3월23일(금)열린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용인캠퍼스의 전(前)총학생회장과 전(前)사회대학생회장 제판에대해 사회대 김모군은 『세학기시작과 함께 과거에 우리학교와 이나라의 통일을 위해 열심히 싸워온 동지들이 서서히 잊혀지는 것같다』며 『차가운 감방안에서 의연히 싸우고있는 구속동지들 위한 전지보내기등 조그마한 노력들이 모아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사범대, 연합 엠티 진행

선·후배간 침목도모등 목적으로

사범대 학생회는 지난 3월23일(금)·24일(토) 양일간 「참교육 첫세대를 위한 우리사범대 연합엠티(M·T)」를 4개과 2백50여명이 참가한가운데 산청호수에서 개최하였다.

영교과의 「함께 노래부르기」 「미스 영교 선발대회」, 독교과 신입생들의 「전교조 상황극」과 「선배와 신입생의 담화」등이 진행된 이번행사에 대해 한교과의 한 신입생은 『선·후배간의 친목도모와 단대의 결속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영화상영안내〈3월27일(화)~4월2일(월)〉

영화명 / 날짜	서울캠퍼스	용인캠퍼스
27일(화)	귀신	썬더 볼(Thunder Ball)
28일(수)		월(The Wall)
29일(목)	계엄령	망각(The Forgotten)
30일(금)		라팜바(La Bam Ba)
2일(월)	병사들은 하늘로 떠난다	안녕 베트남 (Bye Bye Vietnam)
상영시간 및 장소	매일 오후2시 시청각실 비데오룸(2202호)	매일 오후2시 어문학관 비데오룸(1406호)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동정

◎김점기교수 계간지창간호 발행

계간지 「저널리즘비평」편집인겸 편집주간인 본교신방과 김정기교수는 저널리즘비평 창간호를 지난3월1일 (목)자로 발간하였다.

◎직원노조「우리」지 발간

본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3월20일(금)직원노보 「우리」지 제10호를 발간하였다.

학과움직임

◎신방과 동문초청 공개강의 열어

정책과학대 신문방송학과는 현계문화방송제작부편성국장인 김광수(독어과 57학번)동문을 초청, 언론사 취업관련정보에 대한 공개강의를 지난 3월22일(목) 오후 3시 사회과학관 509호에서 열었다.

◎사학과 고적답사 실시 경남일대 가야문화권서

사학과는 지난3월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해인사 통도사등이 있는 경남일대 가야문화권으로 춘계고적답사를 다녀왔다.

◎서울 서어과 「함께가자」창간

서양어대 서반아어과 편집부는 3월22일(목)자로 과신문 「VAMIONOS (함께가자)」창간호를 발간하였다.

동아리소식

◎「모의 월드컵」4월2일부터

등록금문제로 연기된 서울캠퍼스 「제9회 모의월드컵대회」가 축구부주최로 오는 4월2일(월)부터 4월11일(수)까지 27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용인, 야구반 전국 아마야구제전 참여

용인캠퍼스 야구반은 오는 4월1일(일)부터 4월30일(월)까지 중앙대학교 주최로 열릴 「제10회 전국아마추어야구제전」에 참가한다.

◎연극「금관의 예수」공연

서울캠퍼스 가톨릭학생회는 연극 「금관의 예수」를 29·30일 양일간 오후 5시부터 대강당에서 공연한다.

이사람

지난 87년도 「언어학 연구회」로 시작해 언어학공부를 하는 등 작은 모임으로 활동해오다, 우리말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대상을 전환한 「우리말 연구회」가 동아리 등록신청을 해서 현표의 반대도 없이 동아리 연합회 학술 제1분과에 가등록 되었다.

『학내 곳곳 게시판의 대자보를 통해 아름다운 순우리말을 보급하고, 외래어를 알맞게 바꿔 사용하는 북한의 언어 연구와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말의 보존에 힘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외대내 언어순화나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우리말연구회 회장 허정원(사범·한교2)군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혼을 바로 알기 위해 학내민족문화운동 동아리와 연계도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본교가 외국어대학이라는 특수성때문에 학생들이 외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데만 노력을 기울이는 나머지, 외국어를 연구목적으로 삼는 문화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점을 비판한뒤 『우리말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쉬운 우리말을 쓰는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서울캠퍼스 「우리말 연구회」회장 허정원군을 만나〉

우리말을 객관적으로 평가, 한국어를 깊이 연구하고 싶어서 「우리말 연구회」에 들어온지가 벌써 1년이 지났다』며 허군은 작년 방학동안 두차례에 걸쳐 강상도를 답사, 방언조사를 했다고 회상했다.

각지방의 고어연구와 우리말의 변천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답사중, 시골사람들의 생활을 통해 그들을 이해할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허군은 방언조사를 위해 중국연변지방에 가보고 싶다며 『연변의 한민족은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말 조차 배척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실정』이라며 『우리말이 영어와 같은 외국어에 강간당하고 있다』고 말한 연변의 김성희 시인의 말을 빌어 대학인의 자각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우리말 연구 동아리가 없었다는 것은 참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처음 동아리로 등록돼 자체역량이 부족한데 이점은 타학교 동아리를 방문, 자료수집 등으로 많은 것을 배울 것이며 계속적인 연구와 토론으로 실력을 쌓겠다고 하였다.

요즘 학생들이 한자말이나 영어를 쓰면 유식해 보이는 듯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말의 우수성을 인식하고도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한 것이라서 앞으로 우리말에 대한 지식부족을 극복하고자 「우리말 홍보」를 계속해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군은 끝으로 우리말의 사용을 강조, 『어려운 말을 하기는 쉬워도 쉬운말을 하기는 어렵다』며 『쉬운 우리말을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고 당부한다.

〈이원영 기자〉

비둘기협판

이문

SAINT정기 연극공연

지회 동아리에서는 부활절 및 신입생환영회로 김지하씨의 「금관의 예수」를 공연합니다.

·때:3월29일(목), 30일(금)오후5시
·곳:대강당
·후원: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외대 카톨릭 학생회—

집단상담모임

·때:4월4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시험기간은 제외)
·곳:이문 학생생활 연구소(사정에 따라 왕산도 사용)
·담당교수:정영윤, 서병완교수
·상담지도:정영선
·신청기간:4월3일(화)까지 이문·왕산 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신청실

—학생생활연구소—

모의 월드컵 연기

금번 지회 축구부에서는 3월22일(목)~30일(금)까지 개최하려했던 제9회 모의월드컵을 총학생회 등록금투쟁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연기일시:4월2일(월)~11일(수)

—외대 축구부—

신입생 환영 음악감상회

·때:3월28일(수) 오후5시
·곳:대학원 소강당(6103)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독요음악반—

국토순례반 신입회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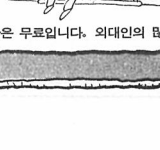
·자격 하나:20일동안 감자국만 먹고도 전국을 순례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가진자.
·자격들:한반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자.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십시요.
*아픈 현실을 헤치면서 백두산 순례 그날까지.

—국토순례반—

연주회 개최및 신입회원 모집

*90학년도 신입생 환영 연주회
·때:3월30일(금) 오후5시
·곳:대학원 소강당(6103)
*외대합창단 신입회원 모집
「외대합창단과 함께라면 고독마저도 감미롭다. 신입생들은 빨랑빨랑 개때깔이 노천극장 지하로 오시오.
월수, 점심·저녁 30회 이상 보장」

—외대 합창단—



법과대학 새내기 맞음식 및 90학년도 해오름식

11명의 꽃새내기를 포함한 150 법대 새내기 여러분/
150 새내기를 포함한
600여 열혈정의 법대인 여러분/
갑시다/ 가서 사랑과 인생과 정의와 법을 이야기하고 자랑찬 법대의 전군을 알립시다.
·때:3월 30일(금)~31일(토)
·곳:경기도 이천 덕평 수련원
·출발:30일 점심시간 즈음 노천극장에서

—민족·자주·통일 법과대학—

왕산

일본어과 학우들 시선집중 요(要)

「낭만적 대학생활」을 후회하고 제신 일본어과 학우는 없읍니까?
「자리」를 찾지못해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다 더 후회없고 보람찬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진 않으십니까?
주저말고 학회방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독서사랑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학회입니다.

—일본어과 학회「독서 사랑회」—

신입회원 모집

교회일치와 교회개혁을 통하여 교회와 세계, 종교와 정치를 거룩과 세속으로 왕분하지 않으며, 예수의 「이웃사랑」을 추상적인 인류애가 아닌 가난하고 고난받는자 중요하신 예수의 삶 자체라 믿으며, 기독인의 윤리적 의무와 예언자적 사명의 실현에 관심있는 학우들을 기다립니다.

·곳:어문학관 211호
·때:언제나

—(가칭) 외대 기독학생회—

제8회 고전기타반 신입생환영 연주회

고전기타반「한사울」이 신입생 여러분을 위하여 조그만 연주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때:3월30일(금)오후5시
·곳:교양학관 201호
·관람료:공짜!
*고전기타에서는 지금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학생회관 417호로 지금 곧 달려오십시오.

—고전기타반—

신입생환영 채플 및 전도요원 훈련 강습회

지회 동아리에서는 오는 3월29일(목), 30일(금)오후 6시20분~8시30분까지 신입생 환영 채플 및 대학생활 안내잔치를 학생회관에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전도요원 훈련 강습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4월2일(월)~6일(금)까지이고 시간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기쁨으로 가는 제자의 길」 이 생명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C·C·C—

동문회

울산향우회

·때:3월 29일(목) 오후5시
·곳:이문동 분수대
·회비:제학생은 5천원+α, 신입생은 공짜/
*하나된 모습으로 울산의 힘을 전체 외대학우들에게.

대구 성광고

·때:3월30일(금) 오후5시
·곳:분수대(왕산학우들도 꼭 참석)
·회비:5000원
*동문회 외에 다른 신(神)은 섬기지 말라.

휘경여고

드디어 기다리던 첫 동문회가 있겠습니다.

·때:3월29일(목)오후5시
·곳:이문동 분수대
·회비:4천원(90학번은 제외)

마산제일여고

「나 하나쯤 안나가면 어때」 모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이미 제일인으로서의 생명을 스스로 버린것과 같습니다.

·때:3월27일(화) 오후5시
·곳:이문동 상징탑

〈이 광고란은 무료입니다. 외대인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광고문의: 서울—본사기자실(학생회관 203호) 용인—본사기자실(학생회관 212호)

시간의 흐름이 마디를 이루는 때에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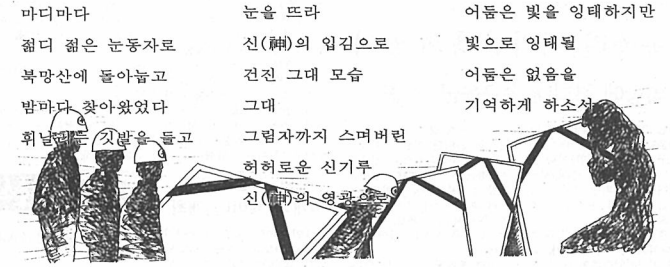
들리는가
그대 가슴
방패가 될 수 없는
종소리
소리없는 함성으로
그대는 승리했다
그러나
고향 뒷산
물 오르는 푸르름에서
빈 뼛속까지 울리는
용얼거리는 바람
시간의 마디
마디마다
젊디 젊은 눈동자로
북망산에 돌아눕고
밤마다 찾아왔었다
휘날리는 깃발을 들고

II

그대
열하의 사막
차디찬 오아시스에
누워
영광스런 시대
꿈꾸는
미이라가 되었나
눈을 뜨라
달콤한 피리 소리에
머리를 흔들며
때로
밧줄이 되는 배암처럼
눈을 뜨라
신(神)의 입김으로
건진 그대 모습
그대
그림자까지 스며버린
허허로운 신기루
신(神)의 영광으로

III

북청색 하늘은
별을 보이고
하늘은
바람과 비
언제나
바람과 비
새가 둥지를 틀 때
하늘님
그때를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이 여미시는
길고 짧은 옷고름
끝내
어둠은 빛을 잉태하지만
빛으로 잉태될
어둠은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글을 쓰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근로자들을 태운 KAL기의 참변은 지금까지도 그 만행의 주범이 누구인지 미확인 상태이고, 사막을 가난한 땀으로 적신 그들은 이제 짐이 필요없는 허허로운 자유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누울 조그마한 방은 라일락 향기처럼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다시 봄이다.

보다 나은 미래와 자유를 위해 산화한 젊은 영혼과 가난하지만 한껏 소박한 영혼은 그래도 우리들의 꿈을 지켜줘 주는 현주소라고 생각한다.

화사한 봄을 뒤로하여 온 세상이 나른해졌을 때에도 대학은 여전히 「깨어있는 자」로 기지개를 켜고, 우리들의 봄은 사막 어딘가와, 캠퍼스에 영원히 뜬 눈으로 잠들어 버린 넋으로 개화(開花)한다.

풍만한 봄은 아직도 왠지 우리들의 눈을 시리게 한다. 역사는 오랜 순환의 띠로 끝없는 글곡을 이루고 우리는 그 구성들의 점(點)인듯 싶다.

이 용 준
〈상경·무역4〉

문예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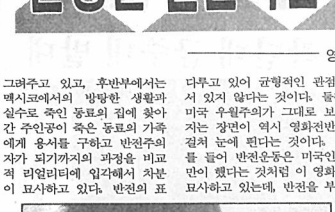
전쟁을 선전하는 반전영화

―――――― 영화 「7월4일생」을 보고

월남전을 소재로 만든 영화는 지금까지 수없이 만들어졌다. 우리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작품을 들어보면 귀향, 디어 헌터, 지옥의 묵시록, 플래툰 등이 있다.

이중 87년에 소개되어진 영화 플래툰은 전쟁중의 상황묘사와 병사들의 심리적 갈등, 선과 악의 대비, 백인과 유색인종들의 반목, 미군의 양민들에 대한 감정적 폭력묘사로 전세계에 선풍을 일으키며 월남전을 평가하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7월 4일생은 플래툰을 만든 감독 올리버 스톤이 플래툰에 이어 종전 후의 상이군인을 통해 월남전을 다시 규명해 보려고 시도한 영화다. 이 영화는 올해 1월초 미국에서 개봉되어 커다란 화제를 모았는데 소위 자본주의 영화제의 극치라는 아카데미상의 강력한 후보로 오르고 있다 한다.

론 코비이라는 상이군인의 자서전을 토대로 만든 이 작품은 종전 후 휠체어에 의지해 고향에 돌아온 상이군인이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반전주의자가 된다는 큰 줄거리로 이루어진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이 영화는 전반부에서는 주인공이 월남전에 참여하기 전의 어린 시절, 학창 생활, 그리고 전쟁중의 양민학살, 실수로 인한 동료의 죽음과 주인공의 부상을 그려주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멕시코에서의 방랑한 생활과 실수로 죽인 동료의 집에 찾아간 주인공이 죽은 동료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전주의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리얼리티에 입각해서 차분이 묘사하고 있다. 반전의 표



시로 머리와 콧수염을 기른 주인공이 휠체어에 앉아 부르짖는 대사는 같은 월남전을 경험한 우리의 가슴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다.

플래툰에 이어 월남전에 참전했던 올리버 스톤 감독의 경험을 객관적 입장에서 다시한번 시도했던 이영화는 월남전을 반전에 입각해서 그려내려는 의지는 영화 전반에서 보여지만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미국인들이 월남전 후에 입은 피해와 갈등만을 다루고 있어 균형적인 관점이서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 우월주의가 그대로 보여지는 장면이 역시 영화전반에 걸쳐 눈에 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전운동은 미국인들만이 했다는 것처럼 이 영화는 묘사하고 있는데, 반전을 부르짖는 미국이 근래 보이고 있는 중남미에대한 대응을 보면 묘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해준다. 세째 다른 영화에서 만큼은 보이지 않는다해도 역시 미국영화가 갖는 상업주의적 요소가 보인다는 점이다. 플래툰에 나왔던 배우들의 기용은 흥행을 배제한 영화는 만들 수 없다는 할리우드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보여지는 영화였다. 그러나 이번 영화 「7월 4일생」은 플래툰에서 보여주었던 상업주의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남형 배우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과감히 지우고 얼연한 톰 크루즈의 연기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급급하며 연기하는 우리 영화배우들에게 작은 충격으로 다가갔으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요즈음 UIP 직배로 인해 커다란 타격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복잡한 검열과정과, 제정적인 지원의 부족으로 밀려드는 서구영화의 뒷전에서 눈물을 삼킬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영화계의 현실을 볼때 우리 영화계의 발전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폭력과 섹스가 난무하는 서구식 영화에 물들어 매표구에서 한참을 기다리더라도 영화를 꼭 보려는 관객들을 우리 손으로 우리 감각에 맞게 만든 영화로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영화인들은 서구의 모방에 그치는 영화에서 탈피하고 이제는 우리 영화의 독창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로 관객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관객은 우리 영화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관객과 영화인의 계속적인 노력이 있는 한 좋은 우리 영화를 보고나서 밝은 표정으로 극장문을 나서는 관객들을 볼날은 결코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양 준 호
〈동양·일어3〉

신간소개

민족현실과 문학비평
―윤지관 지음

민족현실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민족·민중문학론, 소설, 시등에 대한 평론들을 엮은 책이다.

80년대 후반기에 활성화되었던 노동문학과 농촌문학등을 시대적 상황과 연관하여 비평하면서, 리얼리즘 소설의 평가와 이후 전망을 다룬 이 책은, 여러 작가들의 문학이론과 더불어 일제 식민지 시대 문학에 대한 제경토등을 담고있다.
〈실천문학사 퍼냄 값 4천5백원〉

수레를 미는 여성들
―손덕수 지음

빼앗기고 소외되면서도 타인을 살리고 치유하는 존재로써 남성이라는 수레, 역사라는 수레를 밀고가는 여성의 모습을 생활속 체험을 중심으로 쓴 수필집이다.

「모성」이라는 이름아래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며 성의 도구로 「사용」되어왔던 여성들이 이제는 여성해방을 통해 인간해방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체 퍼냄 값 3천5백원〉

문화단신

제1회 독립 영화제
―한국독립영화협의회 주최

「한국독립영화협의회」에서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제1회 독립영화제」를 주최하고 16㎜ 소형영화들을 상영한다.

이 영화제에서는 전대협대표로 북한을 방문한 임수경씨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슬픔을 자르고」와 한내프라치의 양심선언과정을 주제로 한 「전국여이제는 내가 말할 때」가 상영되며 전교조 문제를 다룬 「선생님! 사랑합니다」도 함께 소개된다.

▲연락및 문의처: 예술극장 한마당 743―1266

백지 대자보

봄은 변화이다 내 생각속에도 변화가 온다
―신명생―

봄이 오는 강의실에서 난데없는 소리가 들린다. 「야! 등록금 투쟁 승리했대」
―강의실에서 자는 아이가―

높아진 등록금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환―

산너머 아지랭이 속에 분홍신 신고 오는 봄일의 꽃을 보았다. 보고 싶은 수경 선배!
―경―

주제: 봄이 오는 강의실에서
주의보: 식곤증
―왕산학우―

교수님의 열띤 강의 속에 맞는 것은 파편(침)뿐이요, 느는 것은 몸무게와 잠뿐이요, 주는 것은 지식이다.
―이문동 베트리스걸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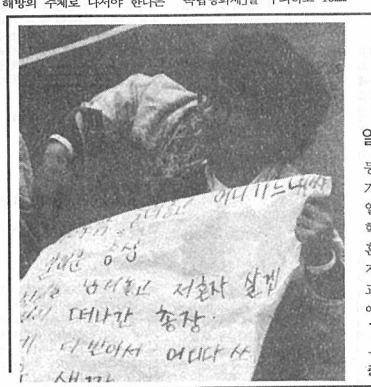
단식하는 학우 생각에 강의시간에도 잠이 안오더라.
―내가―

이제 4월이다. 조금만 있으면 최루탄 냄새도….
―N3―

다음주제 「4월3일과 유채꽃」 입니다.

「주제글」을 모읍니다

○·· 주제: 「4월 그 가슴으로」 ··○
○·· 기간: 4월 7일(토)까지 ··○
○·· 신록으로 빛나는 4월에 우리들은, 흐르는 역사의 강물위에서 젊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슴이 일렁입니다. 일렁이는 가슴으로 잔인한 4월을 넘어 4·19의 정신을 되찾아, 어머니의 품속 같은 4월을 찾아가는 우리의 고뇌와 행동을 담은 글을 외대학보 문화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시(5~6매) ·수필·기행문·일기문·서간문·꽁트(2~15매)외에 어떤 형식의 글이라도 좋습니다. ··○



파수대

얄미운 총장님께!

등록금 올려 놓고 어디
가느냐
얄미운 총장
학생들 남겨 놓고 저
혼자 살겠다고
저멀리 떠나간 총장
교육세 더 받아서 어디
에 쓰냐
……

―등록금 인상 반대 개사곡 중에서― 〈허행진 기자〉

공 고

1990학년도 제1학기 추가등록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등록기간: 1990년 3월28일(수)부터 1990년 3월29일(목)까지

2)등록장소: 서울소재 제일은행및 국민은행 각지점

3)등록금액: 등록금 납부통지서 참조

4)확정등록납입금통지서 배부처:
서울캠퍼스 경리과
용인캠퍼스 총무과

5)1차등록금차액환불예정일:
1990년 4월6일(금)
(지급장소는 추후공고 예정임)

1990년 3월 26일

재 무 처 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영어연수에 관한 안내

1. 연수조건
○연수과목: 영어
○연수기간: 1990.7.8~8.5
○연수장소: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수업시간: 주말제외, 매일5시간(주당 24~26시간)
○반편성: 영어시험 성적에 따라 외국인 학생들과 등급별 배치
○성적평가: U.C.B.에서 종합성적 및 등급부여―본교 및 본인에게 통보

2. 경비: $4,110
○신청료: $50
○수업료: $915
○건강보험료: $45
○교재대: $50
○숙식비: $970
○수속관리비: $50
○기숙사예비비: $30
○항공료: $900
○Tour: $900
○단, 연수경비는 최종인원 확정후 조정

3. 학생선발
○선발대상: 본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소속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지원서 해당란 작성)
○선발인원: 30~35명
○지원기간: 1990.3.26~4.21
○지원서 및 안내서 배부: 서울·용인캠퍼스 학생처
○지원서 접수: 서울·용인캠퍼스 학생처
○선발절차: 1차―소속학과장 및 지도교수 면접후 추천(지원서란 기재)
2차―면접(추후 개별통보)

4. 학점 인정
1)인정과목 및 학점
○U.C.B.에서 소정 과정 이수후 취득한 영어성적은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교양선택, 제2영어, 교양영어 또는 자유선택 과목의 이수학점으로 대체 인정한다.
○인정학점은 최대 3학점으로 한다.
○대체 인정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성적표상에 『해외연수영어』로 성적이 등재된다.
○성적불량이나 출석미달로 성적이 안 나왔을 경우에도 성적표상에 『F』로 등재된다.
2)인점시기 및 수강신청
○학점은 1990학년도 제2학기에 인정한다.
○2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서 연수학점을 뺀 나머지 학점 범위내에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단, 수강신청시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학점 인정 절차
본교에서의 학점인정 및 성적부여는 U.C.B.에서 평가한 연수학생의 성적및 등급에 대한 본교 『학점인정심사위원회』에 심사및 이에 대한 총장의 승인에 의한다.
5. 기타사항
○최종선발된 학생은 학생처에서 시행하는 8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최종 선발된 학생에 대한 여권 및 발급관계는 학생처에서 일괄 담당한다.
○연수를 감당할 수 없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인솔책임자의 재량으로 도중 귀국시킨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처장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 여러분에게!

학자금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로써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상환방법

구 분		상환기간	상 환 방 법
단기학자금		대출후 1년이내	○대월소정 납입기일에 대출원금회균등분할액과 대출금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입
장기학자금	85.8.1 이전 대출과	거치기간(제학기간) 경과후 3년이내	원금: 거치기간(제학기간)경과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대출후 매3개월, 원금상환기간중에는 매월 납입
	85.8.1~89.12.21 대출과	거치기간(제학기간) 경과후 5년이내	원금: 거치기간(제학기간)경과후5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자: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대출후 매월 납입
	89.12.22 이후 대출과	〃	원금: 거치기간(제학기간)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자: ●거치기간(제학기간)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원금분할상환기간중에는 매월단위로 납입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제때에 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서민대중이 알뜰히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 점을 심분 감안 하시어 연체금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국민은행